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란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편집 / 제작: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문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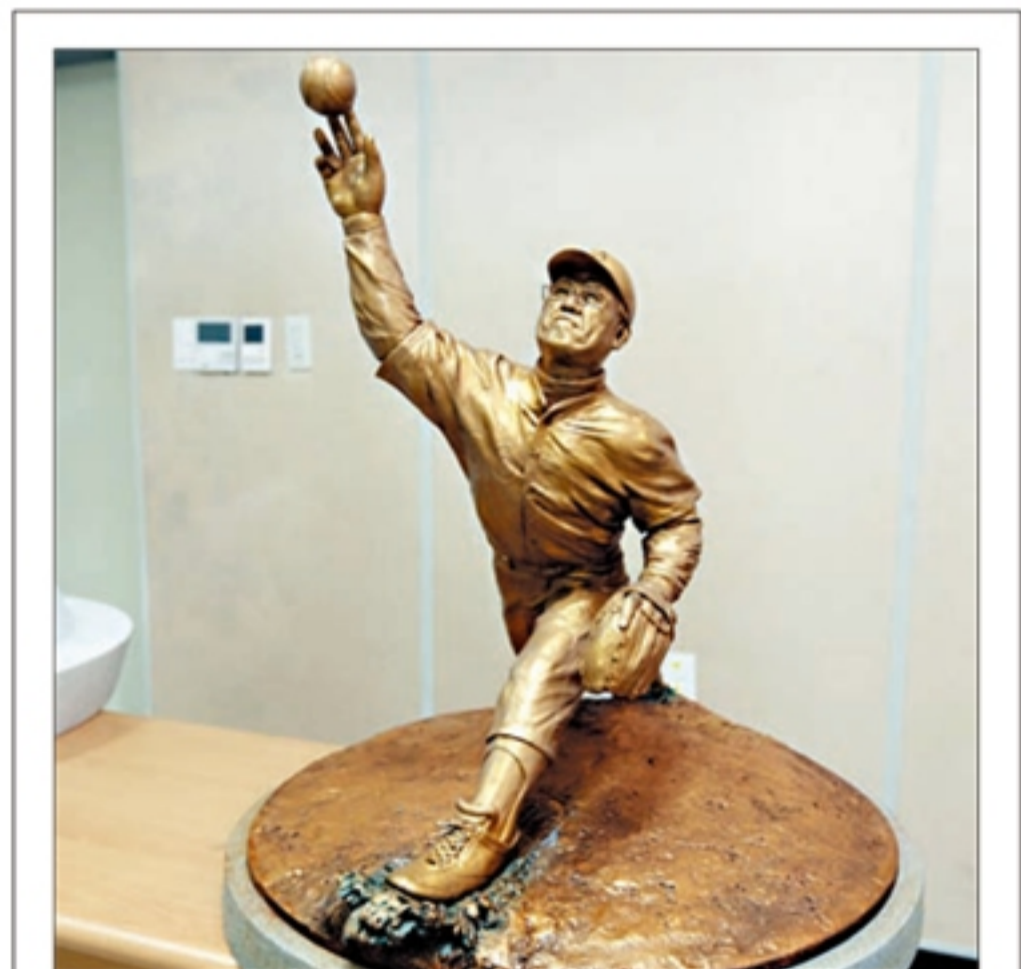
문화재청, 모교 원형교사를 문화재 등록 예고

30일간 예고... 오는 8월 중순 최종심의에서 확정

이용흠 추진위원장 "산업화 민주화 주역들의 추억 서린 곳"
김정신 추진위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으면 최종심 무난히 통과"

문화재청이 지난 6월 26일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덕형관이 1950년대 국내에 건축된 몇 안 되는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원형 교사로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형교사는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경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근대분과위를 소집, 경남고의 원형교사(덕형관)에 대한 근대건축문화재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근대분과위에 참석한 문화재위원 10명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

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흠 모교 원형교사 문화재 등록추진위원장(19회, 본부동창회 고문)은 "원형교사는 건축물로서의 보존가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이 공부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예상했던 바로 아주 잘 됐다"고 만족해했다. 김정신 추진위원(24회,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위원)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한 오는 8월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무엇보다 원형교사를 오래 보존할 길이 열릴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사직야구장 입구에 세울 故 최동원 동문 동상 작품 결정 조각가 박순곤씨 작품... "수정보완 조건" 달아

부산 사직야구장 입구에 들어설 故 최동원 동문(31회)의 동상작품이 결정됐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와 부산미술협회는 최근 부산의 중견 조각가 박순곤(46)씨의 작품<사진>을 '조건부 당선작'으로 뽑았다고 발표했다. 동상 심사위원회는 "박씨의 흠품작이 최동원 투수의 투구 표정이나 투구 동작의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했다"며 "다만 인체 비례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순곤 조각가는 부산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안용복 장군 동상을 제작했고 제11회 신라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부산의 중견 조각가다. 동상 제막식은 최 동문의 사망 2주기인 오는 9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청부살해된 여대생은 '우리 동문의 딸'

아버지 하택환 동문(19회), "다시는 이런 일이..." 억울함 호소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피해 여대생이 하택환 동문(19회)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 동문은 그동안 우리 동문들에게 누가 될까봐 자신이 경남고 동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청부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윤 모씨(68세)가 형집행정지 등으로 4년여 동안 병원 특실에서 입원생활을 해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동창회보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하 동문은 범인 3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기형을 선고받은 뒤인 지난 2008년부터 악몽 같은 사건을 잊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의 산 속으로 들어가 혼자 지내오던 중 지난 2월 "범인 윤이 교도소가 아닌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호화입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는 그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일은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의 법이 돈에 농락 당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계에 있는 우리 동문들이 힘을 합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3면에 인터뷰 기사>


알립니다 - 이번호부터 연재 시작 합니다

■ **천금성 동문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바다로 간 농부>**
천금성 동문(14회)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선장을 지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양소설을 쓴 국내 최초의 해양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천 동문이 풀어놓는 거친 뱃사람들의 이야기,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 **박태환 동문의 '실전골프' 특강**
박태환 동문(30회)은 최저타기력이 67타(-5)인 구력 27년의 아마추어골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출원한 6회, 42홀 연속 No Bogey 플레이, 한 라운드에서 버디 8개 등의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양곤에서 살고 있는 박 동문이 펼치는 '실전골프' 특강에 동문골퍼들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금성 동문



박태환 동문

이번 호 기사 넘쳐 28면으로 증면 발행

- * 청부살해된 여대생의 아버지 하택환 동문 인터뷰 - 3면
- * '집념의 10년' <이승만과 김구> 연재 끝낸 손세일 동문 - 7면
- * 박희태 동문, "정치 졸업하고 평생 처음 자유롭게 지냅니다" - 16면
- * '3대 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허완구 동문 집안 이야기 - 17면
- *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산책 ② - 병산서원 - 19면
- *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바다로 간 농부 ① - 21면
- * "그 놈의 개 때문에..." 엉터리 농사꾼의 전원일기 ④ - 25면

6.25 때 261명 참전, 32명 전사

4, 5, 6회에서 주로 참전...전사자는 5, 6회가 많아
배중현 동문(7회), 자료 등 철저 조사해 집계

6.25 전쟁 당시 우리 동문 261명이 참전해 이 중에서 34명이 전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6.25 참전 및 전사동문 규모가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전동문이며 서울헌병7기동지회 회장인 배중현 동문(7회)이 지난 몇 개월동안 각종 자료들과 동기 및 유족들의 제보 등을 통해 확인,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중(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7일)

에 군에 몸담았던 우리 동문은 △1회 3명 △2회 1명 △3회 23명 △4회 41명 △5회 88명 △6회 82명 △7회 19명 △8회 3명 △9회 1명으로 총 26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전사한 동문은 모두 34명으로 각 기별로 보면 △3회 7명 △4회 2명 △5회 11명 △6회 10명 △7회 2명 △8회 2명이 다.

〈최종 집계된 참전 및 전사동문명단은 4면〉



경남고 찾은 호세, "배팅은 이렇게...OK?" 롯데 자이언츠의 최고 외국인 타자였던 펠릭스 호세가 24일 경남고를 방문, 이종운 감독의 모교야구부선수들에게 일일 야구강습을 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허범도 회장,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

모교지원책 등 현안 논의

허범도 본부동창회장은 지난 6월 4일 서면 '월강초밥'에서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 <사진>하고 70년사 발간, 지역·직능·동호회 활성화, 모교지원 등의 동창회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중, 경남고 교장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동창회와 논의해 모교지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경남중에 대한 지원책도 계속 모색해 보기



로 의견을 모았다.

재학생 후배들에게 '진로-진학 특강'

교수동문, 전문직동문 등 20명, 1, 2학년 대상으로

전, 현직 대학교수 동문 10명과 각계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문 10명 등 모두 20명이 경남고(교장 서강태)초청을 받고 지난 5월 22일 모교에서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진로특강과 상담을 했다.

이날 모교측은 학생들에게 초청된 선배동문들의 전공과목과 직종 등을 알려주고 각자 관심 분야의 특강 교실에 찾아가 강의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모교는 지난해에도 선배동문들을 초청,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크게 학과 탐색(대학교수)과 직업 탐색(전문직업인)으로 구분하여 실시된 이번 특강에 참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학과 탐색 △김준연(17회, 전 동아대 의예과) △박재걸(19회, 전 부산대 수학교육학과) △허홍욱(19회, 전 부산대 생물학과) △이상원(26회, 부산대 지구과학과) △김부운(28회, 부산대 수학교육학과) △김창수(28회, 부산대 무역학과) △정진환(29회, 부산대 토목공학과) △김동준(30회, 부경대 조



특강을 한 동문들이 모교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선해양시스템) △송영환(30회, 부경대 미생물학과) △이철호(30회, 부산대 정치외교학)

◆ 직업 탐색 △박성철(29회,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이정운(29회, 성형외과 의사, 부산시의회 의원) △김재철(30회, 부산MBC 본부장) △김현태(30회, ㈜상명무역 엔지니어링 대표) △마창수(30회, 부산동구청 부구청장) △박진수(30회, 부산일보 논설위원실장) △이병태(31회, 외환은행 부산울산 영업본부 본부장) △한수열(40회, 모두투어 대표) △김진호(42회, ㈜오노시큐리티 대표) △박동식(42회, 송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제11회 용마바둑대회 성대 개최

모교 특별대국장에서 60여명 참가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가 지난 6월 30일 모교에 마련된 특별대국장에서 개최됐다.

용마바둑회(회장 김대욱, 29회, TM마린 대표)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최강부, 일반부 A, B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실력을 겨루었다. 우승: 최강부 23회, 일반부A: 21회, 일반부B: 40회.

용마바둑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개인전 대회, 경부 바둑대회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바둑 TV를 비롯한 각종 전국 대회에도 활발히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허범도 본부동창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용마바둑회 집행부를 초청, 만찬을 하며 바둑대회를 원활하게 치루기를 부탁했다.

부·울·경 동창회 연합회 정기모임

부산·울산·경남 지역 남자고교동창회의 전, 현직 회장들의 친선 모임인 '부·울·경 동창회 연합회'(총회장 이용홍 경남고 동창회 고문)는 지난 5월 30일 저녁 광안리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각 동창회의 현안 등에 대해 토의를 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병수 국회의원(25회)과



임혜경 교육감을 초청하여 현 정부의 부산시 관련 정책 방안과 부산 교육 현황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을 했다.

본부동창회도 이날 경남중 교직원에게 하절기 고급 Y셔츠를 전달했다.

한편 경남중에서는 지난 5월 13일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과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과 BS조은 극장과의 교육 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스승의 날 맞아 경남중고 교직원에게 선물

경남고 학교운영회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교의 교직원들에게 하절기 고급 Y셔츠를 전달했다.

제15회 용마골프대회 가을로 연기

공고까지 하고도 참가신청 미달로

5월 26일 김해가야CC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5회 용마골프대회가 참가신청을 해온 동문 수가 적어 가을로 연기됐다.

본부동창회는 당초 공직에 있는 동문들과 후배 기수동문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요일에 대회를 갖기로 하고

날짜를 정해 공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참가신청을 받아본 결과 골프장 전체를 빌려 대회를 치를 만큼의 숫자가 차지 않자 부득이 대회를 연기하게 됐다.

본부동창회는 가을에 열 대회를 지난해와 같이 동래 베네스트CC에서 열 방침이다.

본부 덕형포럼, 김태근 동문(31회) 초청특강

본부 덕형포럼(회장 정량부, 17회)은 오는 7월 10일 롯데호텔에서 김태근 동문(31회,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본부장)을 초청, '자연과 죽음 - 장례 문화의 모든 것'이란 주제의 특강을 갖는다.

박대동 동문(23회), 모교에서 특강

박대동 동문(23회, 국회의원, 울산북구)이 지난 6월 4일 경남고에서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1학년 2백50명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인터뷰 / 청부살해된 여대생의 아버지 하택환 동문(19회)

“돈 앞에서는 법도 무력... 절망감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의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추잡하고 한심한 일이...”

하택환 동문(19회)은 전화 인터뷰 내내 분노가 치미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하 동문은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딸 하지혜양(당시 22살)이 지난 2002년 청부살해 당하는 참담한 비극을 겪었다. 청부살해를 교사(敎唆)한 윤 모씨(68, 여)는 영남제분 유 모 회장의 부인(김거 뒤 이혼)으로 판사이던 사위(현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와 하 양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는 조카 등 2명에게 하 양을 납치해 살해하도록 했다. 하 동문은 윤씨 등 범인 3명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확정받자 지난 2008년 강원도 평창군의 외딴 산속으로 들어갔다. 악몽 같았던 사건을 잊고 지내려고 신문도 인터넷도 없는 산 속에서 혼자 텃밭을 가꾸며 지내온 것이다.

“병원특실에 있는 걸 알고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런 그에게 지난 2월말 경 ‘믿기 어려운’ 제보가 들어왔다. 범인 윤이 교도소가 아닌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특실에서 장기입원환자로 호화판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다.

- 제보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연세대 의과대 현직 교수다. 그 교수는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평가의의를 하는 본인데, 무기형을 받은 윤이 교도소가 아닌 병실에서 장기입원생활을 하는 걸 보고는 공분을 느끼고 나에게 제보한 것이다.”

하 동문은 제보한 그 교수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알려 드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는 기분이 어땠는가.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였다. 아, 돈 앞에서는 법도 무력해지는구나, 돈으로 법을 농락하는구나 싶어서 낭패감과 절망감이 들었다.”

하 동문은 제보받은 내용을 먼저 MBC에 알렸고 MBC는 지난 4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윤씨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댈땀 떠는 시늉을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멀땡하게 지내는 모습 등을 화면에 담아 보도했다. 이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5월 25일 심층취재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로 자세히 보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월 말 장기 입원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병명이 허위로 진단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녀의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윤씨는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그 곳에서도 퇴원을 권유 당하자 병원을 나

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면서 다른 대학 병원에 또 입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문제를 다루기 나올 앞선 지난 5월 21일 서둘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윤씨를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등으로 4년 넘게 교도소 바깥생활

윤씨에게 6년간 계속 이런저런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는 연세대 의대 박 모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로 밝혀졌다. 유방암 전문의인 박 교수는 2007년 윤씨에게 유방암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해 첫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게 해준 뒤 지난 6년간 파킨슨증후군·우울증·당뇨 등 무려 12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계속 발급해주었다. 윤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로 3차례나 형집행정지를 받아냈고 3~6개월씩 5차례나 집행정지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입퇴원한 것이 모두 38차례였고 병원에 있으면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것이 20여차례나 된다.

- 그러니까 윤이 교도소 밖에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나.

“모두 합해서 4년이 넘는다.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의 절반을 바깥세상에서 지낸 것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겠는가. 사법정의가 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다. ‘유전무죄’라는 말 그대로다.”

- 진단서를 써 준 그 의사가 돈에 매수됐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 것인가. 매수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본다.”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 동문은 “윤이 하루 입원비가 2백만원이 넘는 특실에서 생활해왔다”며 “윤 측이 지불한 병실료는 윤의 이혼한 남편 유 모씨측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씨는 살인 교사범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유 모 회장과 이혼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을 뿐”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 그런 식으로 형집행정지와 연장을 허가해 준 검찰도 문제 아닌가.

“그렇다.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무기수의 경우 교도소를 잘 옮기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윤씨는 무기수인데도 그동안 여주, 포항, 의정부, 영등포 등으로 무려 4차례나 교도소를 옮겨 다녔다. 이에 대해 하 동문은 “옮겨 간 교도소에서 매번 형집행정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교도소를 옮겨 다닌 것이다. 추잡한 뒷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청부살해된 하지혜 양의 생전의 모습.



청부살해 교사혐의로 무기형을 확정받은 윤 모씨(붉은 색 한자복차림)가 파킨슨병환자 시늉을 내는 모습이 MBC TV 카메라에 잡혔다.

“반분은 풀려...우리 동문들이 힘 모아줬으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후 이 사건이 각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타자 지난 6월 3일 이화여대 커뮤니티 ‘이화이언’은 두 일간지 1면에 광고를 실어 “우리는 허위 진단서와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길 바란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본 국민들의 공분이 워낙 커 파장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다.

- 범인 윤이 다시 수감되고 구명 풀린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분이 좀 풀리는가.

“반분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끝까지 않았다. 우선 허위진단서를 써준 악덕의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나서 검찰과 법무부, 교도행정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할 계획이다.”

- 우리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부살해로 무기형을 받은 범인이 하루 2백만원씩 입원비를 내며 4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자유롭게 지냈다. 이렇고도 대한민국을 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본다. 각계의 우리 동문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

수화기 저편에서 하 동문은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참전 및 전사동문 명단 작성한 배중현 동문(7회)

“내 인생의 마지막작업... 이제 맘 편히 죽을 수 있겠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배중현 동문(7회, 서울현7하병동지회장)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집계한 6.25참전 및 전사동문 명단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5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전사사기록에 열정을 바쳐왔다. 그러다가 올해 초 모교에 ‘성찰의 집’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6.25참전 및 전사동문 파악에 나섰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5년전부터 자신이 파악해왔던 일부 참전 및 전사

동문명단에 새로 확인되는 동문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나갔다. 김화지구현우회명비에 새겨진 전사자명단에서 우리 동문을 찾아내고 가족과 동기들의 제보도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작성한 명단을 들고 육군본부, 육군종합학교전우회, 육군감종장교전우회 등의 자료와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국립현충원 기록을 통해 일일이 확인했다. 나이든 사람의 꼼꼼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각 기별로 우편물을 보내 답신을 받았고 내용이 미진할 경우 일일이 전화를 걸어 꼼꼼하게 입대경위, 복무기간 등을 확인했다. 한 사람에게 열 번이상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참전’의 기준을 ‘6.25발발일로부터 종전일까지 군에 몸담고 있었던 동문’으로 엄격히 정하고 그 기간 외에 군복무자는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내 인생의 마지막작업을 해냈으니 이제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 동문은 큰 짐을 벗었다는 듯 훌개분해 했다.

〈최종 집계된 참전 및 전사동문명단은 4면〉

◇ ‘성찰의 집’ 건립성금 내주신 동문

(본부동창회 접수 분/기수 순)

*2013년 4월 30일 ~ 6월 22일 현재까지

- △김중호(4회) 5만원 △김은규(5회) 2만5천원 △강진형(6회) 10만원 △김상업(6회) 5만원 △지창수(8회) 50만원 △김중호(9회) 50만원 △황광건(18회) 30만원 △장홍의(19회) 100만원 △유재진(22회) 200만원 △김안석(27회) 20만원 △정해석(30회) 20만원 △박명진(33회) 200만원 △최웅남(33회) 20만원 △김범성(41회) 30만원 △김찬원(41회) 10만원 △41회 동기회 30만원

〈누계 : 1천7백92만5천원〉

‘성찰의 집’ 건립성금 접수처
부산은행 028-01-032907-5 경남중고동창회

이들은 누구?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동창회보 지면을 빛내주고 있는 동문필자들입니다

당신은 누구?

동창회보

발행부수 = 1만5천700부

우편발송부수 = 1만5천100부

구독료 납부자

작년 3천405명, 올해 4월말 현재 2천311명

**구독료를 내주시는
당신이 바로 동창회보의 주인입니다**

동창회보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연 3만원)와 약간의 광고수입만으로
제작, 발송되고 있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집념의 10년’ <이승만과 김구> 연재 끝낸 손세일 동문(8회)

“연재 끝날 때까지 건강하기만 기도했다”

손세일 동문(8회)이 ‘월간조선’에 장기연재 해온 <이승만과 김구>의 집필을 끝냈다. 지난 2001년 8월호에 제1회분이 실렸고 최근 발매된 7월호에 마지막 회인 제111회분이 실렸으니 햇수로 12년, 중간에 2부를 끝내고 3부 준비를 위해 2년 정도 쉬는 것을 빼더라도 꼬박 10년이나 걸린 집념의 대장정이었다.

월간지 연재횟수나 원고분량에서 기록적

1회 연재에 2백자 원고지로 1백70장~2백장 정도씩 기고해왔으니 전부 합해서 2만장이 넘는 방대한 원고 분량이다. 월간지의 연재횟수에서나 양적 방대함에서나 한국 잡지사(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잡지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손 동문의 <이승만과 김구>는 한국정치에 두 걸출한 인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하는 새로운 서술방식을 사용, ‘정치전기학의 효시’ (김하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 회 상세한 각주(脚註)를 통해 철저한 논증(論證)을 제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성공적 융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사상계>와 <신동아> 편집장,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저널리스트 출신이다.

-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대장정을 끝낸 지금의 심경은,

“홀가분하다 할까, 마음의 큰 빛을 담은 느낌이다.”

그는 “그동안 원고 쓰기에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연재를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연구실로 나왔다”며 웃었다.

손 동문의 <이승만과 김구>는 두 인물의 출생에서 시작, 1949년 김구가 암살될 때까지를 다루면서 두 사람이 걸어온 길과 사상적 궤적을 추적했다.

두 사람 다 개화파에 민족주의자며 반공주의자

- 마지막 회(에필로그)의 제목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은 사실이다. 둘은 다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한말의 개화파였고, 민족주의자였으며, 반공주의자였다.”

손 동문의 설명은 이렇다. 둘 다 개화파였으나 김구는 “의리(義理)는 유학자들에게 배우고 문화와 제도 일체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적용하자”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적인 개화파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동도서기론을 “서편 증계를 오르려 하면서 동편 줄을 잡고 놓지 못함과 같은”일로 비



손세일 동문. 장장 10여년에 걸친 <이승만과 김구> 연재를 끝낸 그는 “마음의 큰 빛을 담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판하면서 나라를 근대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독립운동의 다른 한 큰 맥이었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실효도 없고, 백성들을 괴롭게 그들(백성)로 하여금 도리어 일본의 보호라도 받아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 모두 항일정신과 반일감정이 강한 민족주의자였으나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 이승만은 친일파들도 ‘전문기술자’로서 국가건설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흔히 이승만은 외교와 선전활동에 역점을 둔 반면 김구는 무력투쟁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정적인 시기에는 전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같은 입장이었다.”

이승만과 김구 둘 다 반공주의자로서 반공을 건국이데올로기로 삼았다는 점도 같다. 남북회담에 끝까지 매달린 김구를 친(親)공산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김구는 중국에 있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정주(程朱, 정자와 주자)의 방귀를 ‘향기롭다’고 하던 자들을 비롯된 그 입과 혀로 레닌의 방귀는 ‘달다’ 하니, 청년들이여, 정신을 차릴지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구는 민족지상주의, 이승만은 국가우선주의

거기다가 둘 다 크리스천이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처음되는 기독교국가건설이 이상이었다. 김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구는 1945년 11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영수 환영대회에서 “경찰서 열 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자”고 말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그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정치에서는 이승만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승리와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김구는 남북회담에서 실망하고 돌아와서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독정부라고 거부한 것이다. 김구는 민족지상주의의 이상주의자였다. 결국 미소냉전체제에 대한 인식이 나이브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이승만은 국가우선주의자로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독립국가를 먼저 만들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의 냉전 구조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김구의 선택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손 동문은 최근 이승만과 김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의 태도에 대해 “역사적 교훈을 객관적 사실에서 찾아야지 관념에 따라 편리한대로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된다. 그것은 역사의 오남용(誤濫用)이다”라고 강조했다.

연재 끝내고도 책 출판 준비로 여전히 바빠

일찍이 1970년에 단권의 <이승만과 김구>(일조각)를 펴낸바 있는 손 동문은 자신의 <이승만과 김구> 집필을 “라이프 워크(필생의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오직 이 한 가지 일에만 꼬박 매달려온 그에게 “연재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 좀 쉬 수 있겠네요”라고 했더니 “그러고 싶는데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선 그 동안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출판하는 일 때문에 그는 요즘도 매일 아침 일산에 있는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마포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로 출근하고 있다. “시간 내서 부산으로 회 잡수시러 오시라”고 했더니 “현해를 굽이치는 고래들도 보고 싶고, 싱싱한 생선회도 그림기는 한데...”라고 답했다.

전화인터뷰를 끝내면서 모교가 대통령과 3부 수장을 배출한 것도 자랑이지만 80이 내일 모레인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대작(大作)을 쓴 손 동문 같은 이가 바로 우리 동문이라는 사실도 자랑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차웅(19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기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 37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5월 25일)



본부회장 : 이호성 재경회장 : 안명도 추진위원장 : 박선호

KJ 김&정 해운대병원

척추관절통증 최선을 다하는 병원

원장 김법영 (33회), 정재익, 강동완, 이용균

진료과목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 척추 클리닉(허리, 목 디스크)
- 두통 클리닉
- 관절염 클리닉
- 노인병 클리닉
- 통증 클리닉
- 뇌졸중 클리닉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당뇨)



척추 및 어깨질환의 획기적인 비수술적 치료

FIMS (컴퓨터영상신경치료법)

진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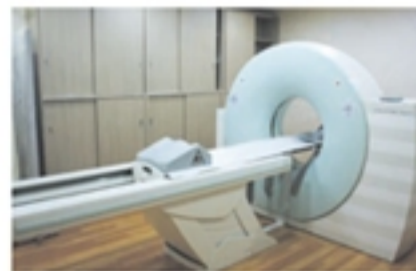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일요일 : 휴진



입원실



진료실 입구



CT촬영실



입원실 입구 / 안내

CT(컴퓨터단층촬영) / 근전도검사 / 골다공증검사 / 초음파검사
고주파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자기장치료 / 물리치료

※ 김&정 해운대병원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88, 울트라타워 8층 (지하철 2호선 장산역 10번 출구 방향)
Tel: 051) 702-7017 (입원실, 수술실)

※ 김&정 신경외과의원 (양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2 (지하철 양정역 4번 출구)
Tel: 051) 862-5454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2시)



기고 / 동기들과 함께 갔다 온 중국 계림 여행

잠옷차림으로 시내 활보하는 '아무따나' 패션에...

정순창
(19회, 전직 의사)

가고보니 장마철...하루에 대여섯번 비

'19산악회'의 동기들과 중국 계림 지역에 지난 5월 4일 출발해 4박6일 일정으로 단체여행을 갔다 왔다. 이번 여행에는 이복춘, 유문환, 정순창, 이인석, 이상만 동기가 부부동반으로 참가했고 최홍표, 김인선, 최광훈, 김정국, 조순제, 이수현 동기는 싱글로 참가했다. 필자는 중국여행이 처음이다. 중국은 산천의 색깔이 우리와 비슷했다. 길거리에도 우리랑 생김새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그런데, 계림은 대기가 쾌(快)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이라도 비가 그치면 산뜻한 공기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데, 계림에선 그게 없다. 오뉴월이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하루에도 대여섯번 비가 내리다말다 한다. 호텔방에 널어둔 빨래가 밤을 새우고도 전혀 마르지 않고 풀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이드의 말로는 계림여행은 3-4월과 9-10월이 좋다고 했다.

과연 계림...중국풍 동양화 풍경 딱 그대로

위가 동그랗고 약간 길쭉한 선인장을 온 천지에 심어놓은 듯한 계림의 풍경은 가히 '桂林山水 甲天下'라고 할만큼 눈을 즐겁게 한다. 딱 중국풍 동양화 그대로다. 중국의 가옥들은 좀 크고, 번듯해 보인다. 시내에서나 외곽으로 나가나 대체로 그런 것 같다. 기후 탓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옷차림은 '아무따나'다. 잠옷차림으로 태연히 시내를 활보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계림여행지에서 '인증 샷'을 찍었다. 남자들은 모두 서고 여자들은 모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이채롭다.

이상하게 보지도 않는 눈치다. 옷은 대체로 검은 색 계통이다. 대신 간판을 비롯한 여러가지 치장들은 주로 빨강과 금색이다. 계림 시가지의 길은 넓다. 길 양옆에 화단이 있고 그 바깥쪽에 또 넓게 자전거와 스쿠터 길을 만들어 놓은 곳도 도심에는 꽤 있다. 스쿠터가 제일 많이 눈에 띄었고 그 다음이 자동차와 자전거인 것 같았다. 스쿠터에 작은 리어카(혹은 짐칸)를 달고(뿔뿔우고) 다니는 것도 많이 보인다. 한마디로 '무질서 속의 질서'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물'들이 어지럽게 도로를 누비지만, 빨리 달리는 차는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래서인가? 언전에 여행한 모스크바에서는 하루에 열 건의 접촉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계림에 머무는 5일 동안 작은 교통사고도 한번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시끄럽고 음식은 별 먹을 게 없고 역시 들어서 알고 있던 그대로 중국사람들 정말 시끄러웠다. 그들 언어의 높낮이 때문에 모두 항상 말을 크게 지르기 때문인가 싶었다.

남부 중국의 음식은 맛으로 먹을 게 없다. 이런저런 채소들을 기름으로 요리한 것에도 생선도 별로고, 고기도 거의 없다. 한국여행객을 위한 한식(김치 같은 것)도 먹을만하지 못했다. 차는 마실만 하지만, 커피가 아예 없는 호텔도 있고, 커피가 나오는 호텔의 커피도 우리나라 옛 다방커피와 비슷했다.

용승의 호텔에서 토종닭 백숙을 시켜먹었는데, 맛대거리 없고 질겨서 나는 껌데기만 먹었다.(많이 먹어놓고 이런 소리해서 친구들에 미안)

계림에서 용승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보는 주위의 높은 산들과 계곡이 좋았다. 대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인공으로 만든 대나무 숲이 20-30%는 되어 보인다. 산에 나무가 울창해도 비가 많이 내리면 개울과 강의 물이 황토색이 된다는 것을 첨 알았다.

30대 초반의 조선족 청년이 우리를 안내했는데 그가 털어놓은 그의 파란만장한 편력을 들으니 그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라면 정말 대하드라마 한 편 만들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비교적 친절하고 열심히 안내하는 그에게서 신뢰감을 못 느끼는 게 아쉬웠다.

이번 단체 패키지여행에서 제일 싫었던 것이 쇼핑센터 방문을 많이 강제하는 것이었다.

기고 / 교복에 달고 다녔던 '산악반 패찰'

경남고 산악반 시절의 추억 담긴 '보물'

이재일
(18회, 전 언론인)

언젠가 이 동창회보를 통해 밝힌 적이 있지만, 나에겐 수집벽이 있어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조차 버리지 못하고 지금껏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 그것들 중 하나가 경남고 시절 산악반 반원으로 활동하며 자랑스레 가슴에 달고 다녔던 이 패찰(사진)이다. 크기를 재어보니 가로 8cm에 세로 6cm다. 에델바이스 문양에 'SEIL'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유는 당시 경남고 산악반이 부산의 등산동호인 모임인 '자일클럽'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산악반 대표로 2학년 4명이 시합 참가

이 패찰에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경남고 2학년 때인 1962년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60km 극북 등행대회'에 바로 이 패찰을 가슴에 차고 참가했던 것이다. 대구 팔공산에서 열린 그 행사에는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사회의 등산클럽의 멤버들이 참가, 2박3일 동안 등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겨루었다.

나는 당시 2학년이었던 하자호, 백승래, 박종순 군과 함께 '경남고 산악반'을 대표해서 그 대회에 출전했다. 당시 3학년 선배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느라 2학년들만 나선 것이다. 우리는 "경남고 산악반의 이름을 빛내야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각오를 단단히 했다.

팔공산 등정시합을 끝내고 마지막 날에 동촌국민학교에서 대구역까지 16km를 어는 팀이 빨리 걸느냐를 겨루는 시합이 있었다. 걸어야지 뛰어서는 안 되는 '경보대회'였다. 주최 측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뛰는 팀을 적발하면 감점을 주었다. 우리는 출발하기에 앞서 배낭무게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쌀과 반찬, 땀에 젖은 양말 등을 빼냈다. 반합, 야전삼, 피켓 등 주요 장비들까지도 버리고 싶었지만 워낙 비싼 것들이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

16km 걷기대회에서 팀원 발휘...장려상 받아

10km쯤 왔을 때 우리 팀의 백승래 군에게 탈이 났다. 다리에 경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육이 뭉그러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종착지인 대구역까지 가서 배낭을 내려놓고 다시 되돌아 와서 일행을 돕기로 결정했다. 빠른 걸음으로 곧인지점까지 가서 내 배낭을 먼저 놓고는 뛰어서 돌아와 백승래 군의 배낭을 받아 쥐고 그를 부축해서 다시 곧인지점으로 향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부상당한 친구를 번갈아 도와가며 남은 2km를 돌파했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16km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대학생 참가자들도 여러

명이 끝인하자마자 퍽퍽 쓰러졌다. 경기가 끝나고 일반부, 대학부, 고교부 등 3개 부문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 팀은 뜻밖에 '장려상'을 받았다. 다친 친구를 부축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심사위원들이 보았던 모양이었다. 어쭙잖은 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다.

전교생 모인 조례시간에 불려나가 박수 받아

우리는 학교로 돌아와 장려상 상패를 교장선생님에게 전달했다. 교장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수고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모인 조례 시간에 우리 네 명을 앞으로 불려내 등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 때 전교생으로부터 받은 박수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울리는 듯하다.

그 때까지는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에나 전교생 앞에서 박수를 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일개 서툰 산악반이 큰 상도 아닌 장려상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어찌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패찰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에게 고교시절의 멋진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물'로 대우받고 있다.

각종 기고문, 용마에세이, 편집자에게 등원고 받습니다

보낼 곳 =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yongmanews@gmail.com

동기회 소식

◇ 9회 = 정기총회

지난 5월 22일 풍미 초밥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회장 이대규, 감사 신도수 조이호, 국장 최성욱 동문이 전원 유입됐다.

◇ 14회 = 경고 vs 부고 친선바둑대회

지난 6월 9일 명인기원에서 부산고 출신들과 친선바둑대회를 가졌다. 경고측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경고측 21명과 부산고측 16명 등 모두 37명의 예기가들이 참가했다. 백흥수 사범의 주선으로 양팀 동수 끼리 친선대국으로 시작하여 자유대국으로 진행돼 하루종일 수담을 즐겼다. 경고·부고친선바둑대회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제8차 대회였다.

◇ 29회 = 경부 합동 산행

지난 5월 11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완주군 소재 대둔산 일원에서 경부 합동 산행을 가졌다. 서울, 부산에서 각각 출발한 40여명의 동기들은 첫째날 오후 늦게 만나 1박한 뒤 다음날 산행 조와 케이블카 조로 나뉘 정상에 오른 뒤 하산, 전주 민속식당에서 술잔을 나누었다.

한편 본부 동기회 (회장 양승오)에서는 지난 5월 13일 초량 노블리아 뷔페에서 전임 동기 회장들과 함께 경남고 야구부원을 초청하여 후원의 밤을 열고 경고 야구 중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37회 =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지난 5월 25일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경남고 교정 및 부경대 비스타스에서 가졌다. 오후 2시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기들은 모교 교정에서 답소를 나누며 기념 촬영도 하면서 학창시절의 추억에 젖은 교실, 운동장, 강당 등을 둘러보았다. 장소를 옮겨 부경대 비스타스 소민홀



에서 공식행사를 가지고 난 후 비스타홀에서 반별, 개인별 장기자랑 등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기회는 모교발전기금으로 200만원, 경남고에 교직원 300만원, 재학생 230만원을 선물대로 각각 전달하였으며 본부 동창회에서는 홈커밍데이 행사에 큰 수고를 한 유효섭 본부회장, 안명도 재경회장, 박선호 추진위원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 47회 =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지난 6월 22일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경남고 교정 및 코모도 그랜드볼룸에서 가졌다. 이날 동기들은 학교를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한 후 코모도호텔로 장소를 옮겨 만찬을 가졌다. 동기회는 경남고에 발전기금 300만원 외 별도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부 동창회에서는 김동휘 본부회장, 김현우 재경회장, 정민호 추진위

원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지역, 동호회 소식

◇ 사하구동창회 = 아우회 개최

지난 4월 26일 거제도 일원에서 아우회를 개최. 서강태 경남고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도 함께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용마가족이 참석, 맹종죽 테마파크, 칠천도, 저도 등을 관광하고 족구시합도 가졌다. 거제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진양호 (34회, BSS ACADEMY영어학원 원장) 동문이 이날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대접했다.

◇ 기독교동문회 = 봄 집회

지난 5월 22일 저녁 7시30분 삼일교회당에서 30여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봄집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강사에 초청된 김명현 박사는 '창조과학을 통해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

◇ 덕경회 = 박명진 동문(33회) 사업장 방문



지난 6월 12일 박명진 동문(33회, 고려개발 대표)의 사업장인 김해 부원역 복합단지 '아이스퀘어'를 방문했다. 송규정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아파트, 대형마트, 복합몰, 호텔 등 1조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에 감탄을 연발 하며 박 동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디서 무엇을...

<9회>

△허완구 = 5월 11일 경남 진양군 지수면 고향에서 조부 지신정(止愼亭) 허준 공의 생가복원 준공식. 서해량, 김경희, 김희철 동문이 참석. △안병환 = 현병7기로 6.25 참전. 010-8927-1388 △권영대 = 오리엔트 해운(주) 대표이사. 미국과 멕시코 출장 후 5월26일 귀국. △이환원 = 몸살로 세브란스병원 입원했다가 퇴원. △최성학 = 신한은행 동우회 주관 행사에 참가. 5월 28일 광양제철소와 여수의 이순신 장군 사적지 관광. △황호승 = 예비역 소장, 용마출신 장군들의 모임인 경수회(慶帥會) 회장. 5월 10일 금년도 첫 모임 주관.

<10회>

△오기문 = 5월 24일 차남 결혼. 강남웨딩 컨벤션

<13회>

△허덕수 = 6월 17일 장모상, 목동 이대병원 장례식장

<14회>

△김의웅 = 5월 25일 아들 결혼, 코모도호텔 △김홍준 = 5월 3일 모친상, 부산 금곡동 좋은장례예식장 △이상준 = 4월 25일 모친상, 부산 청십자병원

<15회>

△김경일 = 5월 15일 모친상, 좋은 강안병

원 △김형영 = 2월 28일 부친상, 좋은 강안병원 △이승남 = 6월 9일 3남 결혼, 부경대 베리타스홀 △임영길 = 5월 6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장 취임 △이은수 = 5월 1일, 병원이전, '양남 정형외과의원' 개원. 경북 경주시 양남면 607-3. 054-743-8575 △황춘식 = 2월 17일 차남 결혼, 부산여 대한동문

<17회>

△조종언 = 6월 15일 장모상, 부산 의료원 장례식장

<18회>

△곽병태 = 3월 2일 장인상, 동아대병원 △김경걸 = 5월 24일 상배, 동아대병원 △김병학 = 3월 23일 장남 결혼, SK 허브웨딩홀 △김정태 = 6월 15일 장남 결혼, 마린센터 웨딩홀 △박성의 = 4월 13일 차남 결혼, 당산동 성당 △박순정 = 6월 20일 부친상, 온병원 △송한승 = 6월 20일 영국에서 차녀 결혼 △이의희 = 4월 30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정용호 = 4월 13일 차남 결혼, 분당 요한성당

<19회>

△오태수 = 4월 28일 장남 결혼, 해운대 한화리조트 웨딩홀 △정철화 = 5월 16일 모친상, 서울적십자병원 △정학영 = 5월 9일 모친상, 동아대학병원

<20회>

△김승욱 = 4월 20일 딸 결혼 △백문찬 = 5월 2일 모친상, 광안사거리 서호병원 △심원섭 = 6월 1일 딸 결혼,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 △장춘식 = 5월 11일 장남 결혼, 민락동 씨사이드웨딩홀 △최성배 = 5월 18일 미국 로스엔젤리스에서 딸 결혼 △최석립 = 6월 1일 차남 결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22회>

△고인준 = 5월 12일 장녀 결혼,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배영일 = 4월 21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서경덕 = 5월 26일 장녀 결혼,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빛홀 △조학래 = 5월 8일 모친상, 광안리 서호병원 △최원종 = 4월 20일 장녀 결혼, 대구 노보텔 △하만주 = 5월 21일 부친상, 부산 영락공원

<23회>

△김상수 = 5월 30일 부친상, 일원동 삼성의료원 △서상중 = 6월 1일 부친상, 초량 인창병원 △서영수 = 5월 11일 차남 결혼, 부산 농심호텔 △이승국 = 5월 11일 아들 결혼, 서울 아베뉴웨딩 △전영돈 = 5월 30일 장녀 결혼, 빌라드베일리 △조봉래 = 5월 14일 장남 결혼, 6월 5일 장모상, 광안리 서호병원 △최대은 = 6월 15일 장남 결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최세림 = 5월 14일 장모상, 부산 좋은삼선병원 △하길용 = 5월 11일 장녀 결혼, 누리엔웨딩홀 △허갑진 = 6월 16일 장남 결혼, 강남 파티오나인

<24회>

△김준기 = 4월 27일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박정문 = 6월 30일 딸 결혼, 양재동 엘타워 △조용수 = 6월 23일 장녀 결혼, 서울 중구 삼성생명본사 △최창립 = 6월 16일 장녀결혼

<25회>

△김길수 = 6월 29일 차녀 결혼, 사학연금 S웨딩홀 △김상필 = 5월 13일 장모상, 강북삼성병원 △김의식 = 5월 16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박영우 = 울산 시장, 6월 5일 장모상, 한솔병원 장례식장 △박세철 = 6월 8일 장남 결혼, 동래 농심호텔 △송기현 = 6월 8일 장녀 결혼, 충남 서산 르셀웨딩컨벤션 △이대우 = 5월 25일 장남 결혼, 감사원 제1별관 △이명철 = 5월 16일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이상영 = 4월 30일 모친상, 부산 침례병원 △이상웅 = 5월 15일 장인상, 대구 모레아 장례식장 △이상훈 = 5월 12일 차녀 결혼, 파티움 성균관 3F △정상모 = 5월 6일 장모상, 천안 신부동 하늘공원 △조인래 = 6월 8일 장남 결혼,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 △최원태 = 6월 21일 모친상, 신촌 세브란스병원 △하만진 = 5월 21일 부친상,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허영형 = 5월 12일 장남 결혼, 역삼동 GS타워

<26회>

△김태년 = 6월 29일 차녀 결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김형일 = 5월 5일 장남 결혼, 송도성당 △박장현 = 4월 27일 장인상 △박종국 = 5월 14일 장모상, 좋은삼선

<13면에 계속>

◇ 용마산악회 = 천성산 산행

지난 6월 9일 천성산(812.7m)일원을 산행. 산행 능력에 따라 A, B코스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산행에는 1백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참가했다. 오후 4시반경 산행을 마무리하고 식당 '옛골토성'에서 만찬.

◇ 울산지역 동창회 = 체육대회 개최

지난 6월 30일 울산 중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배명철 회장(28회, 경상일보 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용마 가족들이 참가, 족구, 피구, 미니 PK, 릴레이, 장기자랑 등으로 하루를 즐겼다.

◇ 경북회 = 용주사 순례



지난 6월 23일 경북회 창립 후 첫 사찰순례행사로 경기도 용인 소재 용주사에 당일로 갔다 왔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이날 순례에는 정영천 회장(21회)을 비롯한 26명의 동문과 가족 13명 등 모두 39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낮 12시30분경 용주사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점심공양을 하고 이어 주지인 정호(正乎)스님(18회)의 법문을 들었다. 정호스님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출가, 1973년 9월 용화사 전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5년 10월 법주사 석암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정호스님은

옛 담임선생님 모시고 반창회 15년째 계속

33회 3학년7반, "이게 진짜 반창회"

졸업 후 20년 이상 매년 빠지지 않고 반창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동문들이 있다. '33회의 3학년7반 동문들'이 그들이다.

지난 1979년 2월 졸업한 이들은 졸업 이듬해 2월 예텐공원에서 담임선생님이었던 최덕경 은사님(지리과목 담당)을 모시고 카니발 형식으로 처음 반창회를 가졌다. 그 후 이들은 거의 매년 빠짐없이 반창회를 가져오다가 지난 1999년 최 은사님이 정년퇴임을 하고부터는 매년 최 담임은사님을 초청한 가운데 반창회를 열기 시작했다.

올해 반창회는 지난 6월 15일 저녁 부산 연산동 소재 모 일식집에서 열렸다.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에는 서울, 진주, 밀양, 울산 등지에서 온 동문들도 있었다. 이날 반창회에도 최 담임은사님 내외분이 초청됐다. 최 담임은사님의 반창회 참석은 이번이 15번째.

이날 분위기가 익어가자 벌써 50줄에 들어선 제자들과 올해 회수(77세인 옛 담임선생님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옛 담임선생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제자도, 은사님도 이날만큼은 나이를 잊은 채 '구덕산 자락의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담임선생님이 함께 하는 반창회가 진



33회 3학년7반 담임이었던 최덕경 은사가 제자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다.

짜 반창회"라는 말도 나왔다. 제자들은 올해 회수를 맞은 옛 담임선생님에게 행운의 열쇠와 축하금, 선물 등을 전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김법영 동문(김 연 정 해운대병원 원장)은 "우리를 끼리 모여 반창회를 여는 것 보다 옛 담임은사님을 모시고 반창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15년 전부터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다"며 "담임선생님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어서 모두들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용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모두 3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으로 지난 2006년 3월 용주사 주지가 됐다.

이날 순례에는 서울 불교방송 보도국장 박관우 동문(36회)이 취재차 참가했다. 일행은 용주사 순례 후 용릉과 건릉을 둘러보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 9면에 게재된 호치민동문회 발족 관련기사 제목 중에서 '회장에 박철청 동문(20회)'을 '박철완 동문'으로 바로 잡습니다. 편집 기술상의 실수였습니다. 박 동문에게 사과 드립니다.

병원 △설광용 = 오는 9월 28일 아들 결혼, 서면 헤리움 △이병욱 = 6월 22일 장녀 결혼 △이정근 = 5월 18일 장남 결혼 △이정일 = 6월 8일 장모상, 부산 영탁공원 △전강석 = 7월 6일 차녀 결혼, 대치동 포스코센터

〈27회〉

△곽태홍 = 7월 7일 차남 결혼, 청담동 더 청담 2F △김원용 = 6월 11일 장인상, 부산의료원 △김철수 = 6월 15일 장녀 결혼, 서울 리츠칼튼호텔 △김홍채 = 5월 17일 장인상, 서울 아산병원 △김향열 = 5월 5일 장남 결혼, 송도성당 △나천희 = 6월 8일 장녀 결혼, 서울 정동제일교회 △서상호 = 6월 3일 부친상, 초량 인창병원 △성영표 = 5월 4일 장녀 결혼, 양재역 엘타워 △오봉인 = 6월 15일 장남 결혼, 천주교 반포성당 △오용환 = 6월 15일 장남 결혼, 세종문화회관 △이인규 = 5월 17일 장모상, 역삼동성당 △故 이봉춘 = 6월 1일 장남 결혼, 센텀 포도웨딩홀 △정택근 = 6월 15일 부친상, 강남 성모병원 △허중환 = 5월 18일 모친상, 위생병원 △황수영 = 5월 8일 모친상, 강남 성모병원

〈28회〉

△김양태 = 5월 25일 장남 결혼, 대구 둔산 사학연금웨딩홀 △노현상 = 5월 16일 장인상,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류승일 = 5월 3일 빙모상, 침례병원 △배효진 = 6월 8일 아들 결혼, 더케이 서울호텔 △이문섭 = 5월 19일 차남 결혼, 김해 아름다운웨딩홀 △이인수 = 5월 5일 부친상, 영남대병

원 △이정철 = 6월 4일 부친상, 부산 영탁공원 △정대화 = 6월 17일 장인상, 고대 안암병원 △조대현 = 6월 30일 장녀 결혼, 서울 팔래스호텔

〈29회〉

△고용남 = 6월 8일 장녀 결혼, 거제시 오션플라자 △김성률 = 6월 9일 장남 결혼, 서울 역삼동 GS타워 △김성창 = 6월 12일 부친상, 진해 세공병원 △김승대 = 6월 6일 장모상, 서울 카톨릭 성모병원 △김호성 = 6월 10일 장모상, 부산의료원 △박광수 = 6월 23일 장남 결혼, 김해 목화예식장 △박병만 = 5월 11일 장남 결혼, 대치동 스카이뷰 섬유센터 △박성근 = 6월 12일 모친상, 울산 영락원 △백성욱 = 5월 17일 장녀 결혼, 해화동 성당 △이병건 = 제3대 한국바이오학회 이사장 취임 △이윤상 = 5월 25일 장남 결혼, 강남 GS타워 △이형원 = 6월 1일 장남 결혼, 남산 예술원 △임광열, 정성훈 = 6월 17일 임&정 성형외과 개업, 서면역 7번 출구 051-806-1115, 051-628-0011 △최원락 = 5월 29일 사진전 개최, 감천 문화마을 사진갤러리 △최정은 = 6월 1일 아들 결혼, 서울 양재동 엘타워

〈30회〉

△김기수 = 5월 5일 장모상, 광혜병원, 7월 1일 경남고 행정실장 부임 △박모철 = 7월 6일 아들 결혼, 양재동 엘타워 △신반철 = 6월 22일 장남 결혼, 송파구 더 컨벤션(구 교통회관) △이원경 = 5월 25일 모친상, 온종합병원 △조병훈 = 5월 25일

부친상, 침례병원

〈31회〉

△손은정 = 5월 25일 모친상, 대동병원 △오민일 = 5월 14일 장인상, 서울 강남성모병원 △주정욱 = 5월 3일 장인상, 대동병원 △차인용 = 6월 12일 장모상, 동래대동병원

〈32회〉

△정용수 = KNN 경남본부(창원) 영상취재 부장 취임, 010-6789-9360 △정현상 = 5월 19일 장녀 결혼, 논현동 파티오나인

〈33회〉

△강동주 = 6월 9일 장모상, 전남대병원 △김재익 = 6월 15일 장녀 결혼, 해운대소명교회 △김학철 = 5월 10일 장인상, 주례보훈병원 △박진수 = 5월 25일 부친상, 영락공원 △박찬관 = 5월 9일 장인상, 부산의료원 △성두대 = 6월 22일 차녀 결혼, 대구 파라다이스 웨딩 △신영재 = 5월 25일 부친상, 인창병원 △이수천 = 6월 21일 모친상, 진주경상대병원 장례식장 △최환호 = 5월 9일 부친상, 서호병원

〈35회〉

△이명진 = 5월 16일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장인화 = 5월 15일,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회장 취임

〈36회〉

△심왕보 = 5월 14일 부친상, 서울 강남성모병원 △오상익 = 4월 29일 부친상, 양지요양병원 △이 호 = 6월 15일 부친상, 부산 서호병원 △임현원 = 6월 18일 부친상, 신촌 세브란스병원

〈39회〉

△박태성 = 4월 23일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최종수 = 5월 16일 부친상, 울산대병원

〈41회〉

△양덕호 = 5월 10일 모친상, 고신대병원 △이양걸 = 이노인테리어디자인 사옥 이전,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77번지 INNO빌딩 △서상우 = 5월 1일 부친상, 강동 경희대병원

부음

- ▲조정규(6회) = 복지법인 비목촌건립추진위 위원장, 6월 4일 별세
- ▲공승표(9회) = 4월 15일 별세
- ▲차진한(9회) = 4월 27일 별세
- ▲김지명(12회) = 5월 8일 별세
- ▲이희대(24회) = 5월 16일 별세, 강남 세브란스병원
- ▲유인협(25회) = 5월 11일 별세, 서울 대방동성당
- ▲송재현(26회) = 별세
- ▲김춘호(26회) = 5월 2일 별세, 서울 아산병원

〈어디서 무엇을〉과 〈부음〉 관련 제보, 투고 및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245-7551~3

김경희 동문의 용마열전 ④ / '영원한 언론인' 故 권오현 동문(1회)

부산시민 위해 筆鋒 휘두른 '지역 언론의 기둥'

김 경 희

(9회, 재경동창회 고문)



'최초로 기자가 된 용마'...장정호 선배보다 빨라

1회 선배들 중에서 신문기자가 된 이로는 지난 호에 소개한 장정호 선배 말고도 권오현 선배가 또 있다. 장 선배는 중앙지에서 명성을 날린 반면 권 선배는 항도 부산의 지방지에서 명활약을 했던 언론인이었다. 필자는 지난 호에서 장정호 선배를 '언론계에 진출한 최초의 용마'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장 선배는 1956년 동화통신에 수습 1기생으로 입사했고, 권 선배는 이보다 1년여 빠른 1954년 10월 부산 민주신보사에 취재부 기자로 입사했음을 이번에 알게 됐다. 따라서 '최초로 기자가 된 용마는 권오현 선배'로 바로 잡는다.

권 선배는 1928년 8월 20일 (음력으로 7월 칠석날) 부산시 초량동에서 5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마흔 둘의 나이에 그를 낳았다고 한다. 선친은 유학(儒學)에 능통한 분으로 당시 부산에서 알아주는 기업체였던 남선무역(南鮮貿易)에서 취재역(요즈음의 이사를 거쳐 남선창고 주식회사 사장까지 지냈다. 이 때문에 권 선배의 어린 시절은 유복한 편이었다.

그러나 부친이 부하직원들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세(家勢)가 급속히 기울고 만다. 이 바람에 권 선배의 말형(동래고보 제5회 졸업)은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명문인 교토(京都)제3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해야 했고, 권 선배도 해방 후 경남고를 졸업하고도 남들처럼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다.

대학진학 대신 취직...졸업 6년 만에 부산대입학

권 선배는 대학진학 대신에 취직을 했다. 조선방직 주식회사의 인사와 직원 공채시험에 응시,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권 선배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진학의 꿈을 놓지 않았다. 경남고를 졸업한 지 6년 뒤인 1952년 그는 부산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3학년 때 가정사정으로 휴학하고 1954년 10월 민주신보사에 기자로 입사한다. 부산대 영문과 3학년 휴학생 신분으로 기자가 된 것이다. 그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1961년 4월에 부산대 영문과에 복학, 그해 8월에 졸업했다. 입학한 지 9년만의 졸업이었다.

그는 기자 4년차이던 해 연말에 발생한 '상업은행 부산지점 강도사건'을 특종보도, 일약 민원기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를 기화로 1958년 부산일보에 스퀷트 된다. 그 후 그는 1986년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부산일보에 몸담았다.

권 선배는 천성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이였다. 언제 보아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으며 일을 추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인화(人和)를 중시했다. 그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필자가 권 선배를 처음 만나본 것은 1966년이였다. 김근준 선배(1회)의 소개로 중앙동 부산일보사를 방문, 첫 대면을 했는데 그 때 권 선배는 정경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 만남인데도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당시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던 필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었다.

동기 김근준과 단박...동창회보 창간 때 도움 말

그는 동기인 김근준 선배와 특별하게 가까웠다. 둘은 봉래초등학교 때부터 경남중고까지 내리 12년을 같은 학교를 다닌 죽마고우였다. 어렸을 때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서대신동 경남학원 부근에서 이웃으로 살

았다. 그래서 어쩌다 필자가 부산에 가서 김근준 선배를 만나게 되면 으레 권 선배도 합석하곤 했다. 반주로 정종을 시켜 마시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권 선배는 부산에서 지방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불만이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활약했던 동기인 장정호 선배를 부러워하며 자신도 처음부터 중앙지 기자로 출발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를 김근준 선배에게서 언젠가 들었다.

김근준 선배에게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김영삼 동문(3회)이 정태상 총리의 비서로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을 때 "하필이면 왜 자유당 공천이나?"며 대놓고 반대했다고 한다.

1968년 5월말 경남중고 동창회 창간호를 신아일보에서 인쇄할 때 권 선배는 김근준 선배와 함께 부산에서 상경, 동창회보 제작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필자를 격려해주었다. 그 때는 그가 부산일보 편집 부국장이었다. 그 후로도 그는 동창회보 제작과 관련,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자상하게 도움말을 해주었다.

구덕산공원을 부산시민 품에 안긴 수훈 공로자

부산시민치고 '권오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은 모교가 자리 잡고 있는 구덕산 일대를 '대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일에 권 선배가 누구보다 앞장섰기 때문이다. 1968년 말에서 1969년 초 사이 구덕산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쳐졌다. 부산시는 1968년 2월 구덕수원지를 폐쇄하면서 구덕산 일대 50만평을 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도 부산시는 50만평 중 17만평을 동아대학교 측에 관리권을 이양했고 이에 동아대학교 측이 '관리'를 핑계로 하루아침에 철조망을 치고 시민들의 등산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잇달았으나 부산시나 동아대학교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산일보는 1969년 3월 28일자에 '푸른 등산길 열어 달라'는 제목으로 사회면 머리기사로 이 일을 여론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권 선배는 편집 부국장으로 이 문제를 시리즈기사 등으로 다루면서 집요하게 부산시를 공격하면서 부산시민들을 대변했다. 이 사이 심야에 권 선배의 자택에 투석(投石)테러가 일어나는 등 곤욕을 치렀고 마침내 외부의 압력을 받은 부산일보 경영주측은 권 선배를 편집부국장에서 기획위원으로 낮추어 좌천시키고 만다.

그러나 권 선배가 앞장서서 무려 3년6개월에 걸쳐 벌인 구덕산 공원화 캠페인은 시민들의 승리로 결말이 난다. 1971년 부산시장으로 부임한 박영수 시장이 여론에 굴복, 동아대학교측에 넘겼던 관리권을 취소시키고 구덕산일대를 '대산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하기로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나중에 박영수 시장은 회고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은 부산일보가 3년6개월간 캠페인을 벌여 동아대가 공원의 관리권을 가진 것을 기회로 공원을 사유화 하려는 것을 막은 일이었다."면서 "오늘날의 부산이 있게 되기까지는 권오현 형처럼 평생을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온 사람들이 불철주야 땀 흘린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산시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라고 적었다. 권 선배는 구덕산 공원화 캠페인에 대한 공로로 1975년 제18회 부산시 문화상(지역개발부문)을 수상하게 된다.

기자출신으로 사장된 첫 케이스...많은 일 해 내

권 선배는 1974년 5월 부산일보의 사원 경영참여방침에 따라 수석 논설위원에서 곧바로 이사로 선임되어 창사 28년 만에 첫기자출신 이사가 됐다. 이어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거쳐 1980년 9월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일보에서



1회 동문들이 졸업40주년 때 모교 국산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정동식, 5번째가 권오현, 6번째가 김근준 동문. 이제 모두 고인이 됐다.

첫기자출신 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권 선배는 5년5개월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일을 해냈다. 취임하자마자 언론통폐합이라는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친 가운데 현수정동 사옥을 신축하는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

권 선배는 신문사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동창회 일에도 열성을 보여주었다. 최재구 선배(3회, 전 국회의원, 산업은행 이사장 역임)는 "모교에서 거행되는 대소 행사와 동창회모임에 김택수 동창회 회장이 바빠서 빠지게 되면 동기인 권 선배가 대신 참석해 김택수 회장의 대역을 잘 해주곤 했다"며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을 내세울만 한데도 내색을 하지 않고 동기인 김택수 회장을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회고했다.

'이젠 마누라 시키는 대로 따라 갈 나이였다'

권 선배는 1984년 5월 경남중고 동창회 고문으로 위촉되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동창회를 위해 헌신했다. 지난 1994년 12월 제4회 용마대상을 받았다.

그는 1986년 부산일보 사장자리에서 물러난 뒤 요산(嶽山) 문학상 운영위원장, 부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했고 학교법인 한성학원(현 경성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권 선배는 늘그막에 이르러 아내 정수 여사와 함께 기독교에 입문, 동대신동의 신광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교회에 나가면서 주위사람들에게 "이젠 마누라 시키는 대로 따라갈 나이가 되었다"고 속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면서도 친구들과 만나 술 마시는 것은 전과 다름없었다.

권 선배는 아내가 숙환으로 타계한 지 5년 뒤인 지난 2010년 12월 22일 숙환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향년 83세였다. 필자는 동아대병원 영안실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권 선배를 떠나보내고 유가족을 조문했다. 그의 묘소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부산 추모공원에 있다. 유족으로는 장남 용학(개인사업), 차남 용진(시원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삼남 용후(권용후 비뇨기과 의원 원장) 등 세 아들이 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제396호)의 <용마열전③ / 故 장정호 동문(1회)> 글에서 '장 동문의 은사인 소설가 요산(嶽山) 김정환교수'는 '요산(嶽山) 김정환(金廷煥)교수'의 오기(誤記)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고 권오현 동문

스승의 날 맞아 김계곤 은사님 병문안

4년째 요양원에서 투병 중

스승의 날을 맞아 김경희 동문을 비롯한 6명의 동문이 지난 5월 15일 투병 중인 김계곤 은사님(전 한글학회 회장)을 찾아가 위로했다.

김 은사님은 4년 전 한글학회 회관에서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목뼈를 다쳐 인제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한빛요양원에서 4년째 입원 중에 있다.

이날 병문안을 간 동문은 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이종문(11회, 방통대 명예교수), 김종의(13회, 백광화학(주) 회장), 조규향(14회, 전 동아대 총장), 김종도(14회, 수원대 명예교수), 한진출(15회, 전 진해화학(주) 사장) 등 6명.

이날 병문안에는 이들 외에도 김 은사님의 보성고 제자 10명과 인천교대 제자 2명도 함께 했다.

인물 동정

임영길 동문(15회) 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장 취임

임영길 동문(15회)이 지난 4월 1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 지부장에 취임했다.



임 동문은 부산대 상대를 졸업, 110 R.O.T.C 3기 출신으로 강원 동부전선 대간첩작전 유공으로 대한민국 보국훈장을, 베트남전 참전유공으로 인헌 무공훈장을 받았고 2012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박대동 동문(23회) 국회 헌정대상 수상

박대동 동문(23회, 국회의원, 울산 북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뽑혀 헌정대상을 받았다.



박 동문은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 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예금 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김기동 동문(37회) 부산 동부 지청장취임

김기동 동문(37회)이 지난 4월 23일 제 26대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취임했다.

김 동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

수원 (21기)을 수료하고 서울 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 지검 의성지청장,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구 지검 제 2차장 검사를 거쳤다.



최범수 동문(29회) 신한아이타스 사장 취임

최범수 동문(29회)이 지난 5월 23일 신한아이타스 사장에 선임됐다.

최 동문은 그동안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6년간 신한지주의 전략기획을 담당해왔다.



구상찬 동문(31회) 주 상하이총영사에 임명

구상찬 동문(31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4일자로 주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구 동문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보특보를 지냈고 2008년 2월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할 때 동행하기도 했다.



박외병 동문(35회) 국과수 총무과장 발령

박외병 동문(35회)이 지난 4월 18일 국립

인물 포커스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에 당선된 장인화 동문(35회)

“강과 바다 낀 부산은 수상스포츠의 최적지”

오는 8월 부산서 세계대회...“인프라구축 시급”

장인화 동문(35회, 통일철강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17대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장에 당선됐다. 장 동문은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전임 우방우 회장의 뒤를 이어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협회를 이끌게 된다.

장 동문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3 IWWF 웨이크보드 세계선수권대회가 오는 8월 28일 부산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부산은 수상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가 일반인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대중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국내에서 매년 국제대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 부산 웨이크보드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수상스키웨이크보드연맹(IWWF)이 공인하는 국제대회로 9월 1일까지 5일간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수변경기장에서 열리게 된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수상스키·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에 매달려 점프와 회전기술을 구사하며 수상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스포츠 종목이다. 현재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장인화 동문.

선정돼 있다. 조만간 정식종목으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동문은 “부산은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 수상 스포츠와 잘 어울리는 도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 스포츠종목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꿈도 못 꾸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대회가 끝나면 경기계류장을 수상 스키쇼가 열리는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휴양도시인 미국의 마이애미처럼 보고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를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과학수사연구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박 동문은 그동안 안양 동안경찰서장으로 근무해왔다.



제보 바랍니다

동창회보 편집실
yongmanews@gmail.com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제 47회 동기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6월 22일)



본부회장 : 김동휘 재경회장 : 김현우 추진위원장 : 정민호

☕ 조대석 / 박희태 동문(11회, 전 국회의장)

“정치 졸업하고 평생 처음으로 자유롭게 지냅니다”

◇ 만난 사람 = 박승준 편집위원(27회, 인천대 초빙교수)

박희태 동문(11회, 전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아, 그러면 내일 서초동 내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납시다”라며 흔쾌히 응했다. 6선(選)의원에 입법부 최고 수장을 지내다 뜻하지 않게 불편한 심기로 정치를 졸업한 그를 지난 6월 5일 오전 만났다.

- 동창회보는 잘 받아 보시는지요.

“늘 반갑게 받아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반갑고, 재미나고 유익한 기사들과 동창회 관련 소식으로 동문들에게 일체감을 형성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어중간하고 덩덤한 표정으로 느리게 말하는 것은 여전했고 후배를 다정하게 대하는 그의 소탈한 성품이 편하게 느껴졌다.

“정치? 작년에 그만 뒀어요”

-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유롭게 지냅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시간 내 맘대로 쓰면서... 내 몸의 주인이 나라는 걸 느끼면서, 아무 데에도 얽매이지 않는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자유로울 때가 또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 정치는 구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정치요? 작년에 그만 뒀어요. 그만 둔 지가 한 일 년 됐네. 정치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정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직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 거지. 혼자서는 정치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 종편TV에는 요즘 한 일곱 여덟 번 좀 나왔네. 그게 뭐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문제’에 대해 종편TV를 통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 얼마 전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스스로를 낙엽에 비유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으로 한 말씀입니까.

“내 고향이 남해 아니요. 지난 연말에 고향에 가서 내가 쓴 ‘화(和)’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국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낙엽귀근(落葉歸根)’을 말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낙엽귀근’을 말한 것인데...”

“고향에 돌아왔다”는 뜻으로 했던 말이었지 자신을 스스로 ‘낙엽’으로 비유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로 들었다.

“화(和)”는 그의 정치이력집이다. 그 책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로 22년간 재직 후 의회에 진출한 그가 자신의 타고난 화(和)의 성품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집권당의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날렸던 촌철살인의 명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를



박희태 동문. 그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란 말이 상당히 명언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들면, 평민당과 신민당의 야외집회를 논평하면서 ‘보라매공원 집회에 보람 없고’, ‘여의도 집회 여의치 않고’, ‘부산집회는 부산만 팔았다’는 식이었다. 회노애락을 얼굴에 표현하지 않고 덩덤한 표정으로 한마디씩 툭 던지는 그의 유포어에는 가시가 있었고 동시에 엄정한 판결이 있었다.

또한 그의 폭탄주는 하도 유명해 ‘6선 의원으로 정치는 6단이나 폭탄주로 하는 정치, 즉 주치(酒治)는 9단’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JP가 말한 ‘정치는 허업’...그 말이 명언”

- 요즘도 술을 자주 하십니까.

“빈도는 줄었지만 가끔 하지.”

- 일본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원로 정치인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의장님도 건강이 좋으시나...

“일본은 내각제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리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끌고 가는 대통령제에서는 힘들지. 내각제는 동료들이 중지를 모아 무엇이 최고인지를 찾아내는 거지. 내각제와 대통령제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

- 어떤 정치인이 ‘정치는 헛 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거리를 두고 보니 정치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그건 JP가 한 말인데, ‘정치란 허업(虛業)’이라고 했지.

나는 JP한테 그 말을 몇 번 직접 들어봤어. ‘장사는 남는 게 있지만, 정치는 그만 두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인데, 나에게도 그 말이 상당히 명언같이 들리네.”

이 대목에서 그를 정치에서 졸업하게 만든 ‘돈봉투 사건’에 대해 말을 꺼냈더니 그는 “나는 모르는 이야기, 구체적인 거 정말 모르니 요 정도로만 하자”고 했다. 그 이야기를 정말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듯 했다.

- 우리 동문 정치인들의 요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비해 아주 활발하지 못해. 우선 동문 국회의원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고, 정치적인 자리를 맡아서 활동하는 동문도 드물고... 정중동(靜中動)인지 좀 그렇네... 내일을 기약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국도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그는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후배들이 정치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와줄 생각은 있어...”라며 여운을 남겼다.

원형교사 짓기위해 돌맹이 날랐던 일 생각나

- 경남고 시절에 특별히 생각나는 일은.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공부했다는 생각. 원형교사 짓는다고 뒷산에서 돌맹이를 주워다가 산위에서부터 일렬로 줄지어 서서 돌맹이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네”

- 그렇게 지은 원형교사가 근대건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거, 돌맹이 나쁜 보람이 있네. 사실 말이지만, 모교가 앉아있는 자리야말로 최고의 명당자리지. 우리가 경남고에 입학했더니 목조건물 하나가 서있었고 거기에 3학년들이 들어갔지. 1, 2학년들은 천막 교사에서 공부했는데, 바람 불면 먼지가 책과 공책 위에 쌓이고... 그래서 지은 게 원형교사야. 추월영 교장선생님 때...”

이 말에 이어 박 동문은 생각난 듯 “요즘 내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회의장 할 때 모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에게 한 톨 낸다 낸다 하다가 못한 겁니다. 그때 선생님을 노고에 감사드리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운데, 모교 선생님들께 이 미안한 마음 꼭 전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건강관리에 대해 묻자 그는 “요즘도 아침 마다 아파트 헬스클럽에 가서 걷고, 뛰고, 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75세이지만 헬스클럽에서 서킷 트레이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빠뜨리지 않고 한다고 했다.

여일,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가

변화, 재미 말고도 창조적이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이미 있는 것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사고, ‘여일’의 정신입니다.

[계열사]

의료 사업 제언기업(주) (주)에코메디노베이션

케미칼사업 (주)그린케미칼 (주)하나기업

친환경사업 (주)에코노아영남사업본부

언론사 시민미디어 시민뉴스

연구소 (유)올라

여일주식회사 회장 허홍욱 (19회), 대표 박준표 (49회)



조부 허준 공의 생가 복원한 허완구 동문(9회)

“오랜 염원 이뤄 기뻐...후손의 도리 다 했을 뿐”

대지 1천평 옛터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복원
조부가 남긴 가훈에서 이름 딴 성경재, 효우당, 근검실

허완구 동문(9회, 승산그룹 회장)이 자신의 조부 지신정(止愼亭) 허준(許駿)공(1844~1932)이 살았던 옛 생가를 복원, 지난 5월 11일 오후 1시 경남 진주시 진양군 지수면 승산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허 동문을 비롯한 집안가족들과 GS그룹 임직원 등 2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복원된 집은 허 동문의 조부의 호(지신정)를 따 '지신고가(止愼故家)'로 명명됐으며 대문을 들어서면 대지 1천여평에 안채인 성경재(誠敬齋), 사랑채인 효우당(孝友堂), 행랑채인 근검실(勤儉室) 등이 들어 서있다. 이들 건물들의 명칭은 허준 공이 남긴 가훈인 성경, 효우, 근검에서 따왔다.

허 동문은 이날 “지신정 할아버지가 사셨던 옛집을 복원

하는 것이 나의 오랜 염원이었는데 이제 그 염원을 이뤄 한량없이 기쁘다”며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허 동문은 지난 2008년부터 조부 허준 공과 관련된 기록인 <지신정유사>와 <지신정 허준 유고첩(止愼亭許駿遺稿帖)>, 그리고 김해 허씨 22대손인 허회(許滄)의 저서 <역주 염호문집(譯註濂湖文集)>을 간행한데 이어 선친 효주 허만정씨(1897~1952)의 기록인 <효주가장> 등을 발간하는 등 선조를 받드는 일에 정성을 들여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허 동문의 부인 김영자 여사가 자신이 펴낸 <진주 허씨 묵동택 내림 음식>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책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의 허씨 가문에서



복원된 허준 공의 생가 입구 쪽. 대문에 '止愼故家'라는 현판이 보인다.

120년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음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신정 허준과 그의 아들, 손자 이야기

3대를 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허완구 동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소문난 부자집이다. 조부 허준 공은 항일운동과 빈민구제에 적극 나선 인물이었다. 할아버지의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집안의 DNA처럼 아들 효주 허만정에게로, 또 손자인 허동문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진양군 지수면 승산리 터줏대감인 허씨 집안의 '3대를 이은 선행'에 대해 알아본다.

■ 지신정 허준

韓末 진양군에서 '만석꾼' 재산가

“내가 조금 넉넉해진 것은 평생 근검하고 절약한 덕분”

허 동문의 조부 허준의 자는 경능(勁能)이며, 호는 지신정(止愼亭)이다. 1844년 진주시 지수면에서 태어나 1932년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42세에 과거에 급제해 59세에 비서원 승에 임명되는 등 관직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후 고향에 돌아온 그는 한말(韓末)의 혼동기에 근면과 성실로 재산을 모아 진양군 일대에서 '만석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지신정은 만석꾼 부자였지만 멈출 줄을 알고(止), 삼가는 것(愼)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인물이었다. '지지(知止)와 '신독(慎獨)으로 항상 자신을 경계했던 것이다.

그는 <지신정 유고집>에서 자신이 이룬 부(富)와 관련, “일찍이 내가 어려서 가난하게 살다가 만년에 조금 넉넉해져서 경제를 일구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특별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단 지 근검하고 절약했을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지신정 허준 공



허준 공의 선행을 보도한 1920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

지신정은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였다. 의병 활동을 하던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지신정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최익현이 의병 자금을 부탁하러 온 듯하다. 이 시기부터 승산리의 허씨들은 '의장답(義莊答)'을 운영하였다. 의장답이란 공공사업을 위하여 허씨들이 내놓은 논을 이른다. 그 논에서 나오는 소출로 흉년이 들면 구휼하고, 공공사업, 장학금 등도 썼다.

지신정의 이같은 선행은 1920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총재산을 공익에...재산가의 모범 허준씨'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생전 가훈으로 성경(誠敬), 효우(孝友), 근검(勤儉)을 후손들에게 남겼다.

■ 아들 효주 허만정

독립운동에 자금 대고 진주여고 세워

6.25 때 살생 막아...구인회와 합자, 럭키 창업

지신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효주(曉洲) 허만정(許萬正)의 후손이 특히 번창하였다. 만석꾼의 아들 효주는 의부(義富)였다. 항일 감정이 강했다. 그는 독립운동 단체인 백산상회에 거금을 투자했다. 말이 투자일 뿐 사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 셈이다. 이 백산상회는 경주 최 부자, 옆 동네인 의령 출신의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 그리고 지수면의 허만정이 주도적으로 돈을 내고 운영한 상회였다.

그는 하층민인 백정의 신분 해방운동인 '형평사 운동'에도 돈을 냈다. '만석꾼 아들이 백정 운동을 도와줬다'고 해서 당시 화제가 됐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남해대교 밑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를 중수할 때도 그는 돈을 기부했다.

효주는 1923년 1천석의 재산을 내놓아 학교를 설립했다. 당초 진주에 남자고등학교를 세우려고 부지를 매입했



효주 허만정 공

으나 일제가 학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독립운동을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학교를 세웠는데, 그 여학교가 지금의 진주여고다. 해방 후 허씨 후손들이 진주여고를 국가에 헌납, 공립 학교로 전환했다.

지수면에서는 6.25 때에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지주들이 많은 부자 동네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지수면에 들이닥쳐 우익 인사들을 처단하려하자 효주가 설득, 살생을 막았다. 빨치산은 그의 의로움을 알기에 비켜간 것이다. 얼마 후, 우익 쪽에서 좌익 인사들을 처단하려고 나섰을 때도 그가 적극 말려 살생을 막았다고 한다.

해방 직후 효주는 같은 동네에 살던 구인회와 합자하여 LG의 전신인 '락희(樂喜·Lucky)'를 창업한 것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

■ 손자 승산 허완구 동문

형제들 중 선조 섬기는 일에 유독 열심

진주여고에 1백억원 들여 체육관 등 지어줘

효주의 5남이 허완구 동문. 허 동문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집안일과 집안어른들을 받들고 섬기는 일에 열심이라고 한다.

허 동문은 지신정과 효주 공의 문집 등을 앞장서서 발간한 데 이어 진주여고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생활관, 교실, 교사사무동, 체육관 등을 건립해주었다. 1980년 대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 이 일에 당시 돈으로 1백억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한다. 허 동문은 최근 큰 돈을 들여 진주여고 내에 있는 '효주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기도 했다. “부친이 세운 학교”라는 이유로 공립학교인 진주여고에 남다른 애착을 보인 것이다.

허 동문이 이번에 복원한 '지신고가'는 그의 부친 허만정의 생가와 약 1백미터 거리에 있다. 조부 지신정은 생전에 주위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생가가 너무 낡았다며 새로 지을 것을 권유하자 “이곳은 선인이 사셨던 집이고 나는 본성이 가볍게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옛집을 그대로 보존하며 지내겠다”며 끝내 신축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6.25전쟁을 거치며 거의 다 허물어져 그동안 빈터로 남아있던 것을 이번에 손자인 허 동문이 2년여에 걸쳐 그 자리에 옛집을 복원한 것이다.



승산 허완구 동문



소설가 허택 동문의 <용마 탐구> - 화가로 변신한 이공희 동문(18회)

“살아 온 내 인생을 캔버스에 담습니다”

MBC 사장과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지낸 이공희 동문(18회)이 은퇴 후 화가로 변신,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양농원 안에 있는 20평 크기의 작업실로 찾아갔더니 그는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세 번째 개인전 준비를 위해 이젤 앞에서 앉아 있었다. 작업복에 땀을 든 그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세 번째 개인전...8년 전 은퇴하고 붓 잡아

- 곧 세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면서요?

“그렇게 됐네요. 첫 개인전은 주위의 권유로 어쩔 곁에 했고...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림을 그리다보니 작품이 쌓이고 해서...”

그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동송동 샘터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갖고 화가로 정식 데뷔했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전은 2012년 11월 역시 샘터갤러리에서 가졌다. 이번의 세 번째 개인전은 7월 3일부터 춘천 ‘알뮤트 1917’ 갤러리에서 40일간 열릴 예정이다.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왕왕 볼 수 있으나 취미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는 경우는 드물다. 이 동문의 변신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어떤 계기로 그림을 시작하게 됐는지요?

이런 질문을 한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는 듯 그는 두 권의 개인전 도록을 읽어보라며 건네주고는 씩 웃으며 말했다.

“퇴직 후 뭘 하나, 무엇으로 남은 생을 보내나 하고 고민하던 중에 친구들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하게 됐죠. 가까이 지내던 인천 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며 열정적인 아티스트인 조광호 신부의 지도를 받아 지난 2005년 59살에 처음 붓을 들게 됐어요.”

MBC 때부터 그림에 관심...해외 가면 미술관 순례

- 그림에 선천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재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평생 해 온 방송관련 업무가 영상예술이기 때문에 PD로서 일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화면구성과 색채 등을 염두에 두어야하니 미술과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 MBC에 있으면서도 회화와 조각, 사진 전시회를 자주 찾았죠. 해외여행 때마다 미술관 순례는 잊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대구 MBC에 근무할 때는 갤러리 경영을 직접 해봤기에 큐레이터와 매일 전시작품을 보면서 안목을 키우는 등 실물 학습을 했어요.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 그림그리기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미술적 안목과 타고난 소질이 없이는 아무나 화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잘은 모르나 그의 작품을 보면 아마추어 티는 전혀 보이지 않는, 프로의 솜씨임을 알 수 있다.

추상에서 구상으로 전환...

풍경화 즐겨 그려

- 첫 개인전에서는 비구상 작품을 선보였다가 그 후 구상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첫 개인전을 마친 뒤 한 동안 진통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초심으로 돌아가고, 비구상에서 다시 처음의 구상으로 돌아간 것이

지요. 물론 이렇게 전격적인 변신이 가능했던 데에는 직접적으로 박재웅 화백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됐고,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작가인 아비그도르 아리카(Avigdor Arikha)에 대한 사숙이 컸어요. 아리카는 추상작가에서 구상작가로 전환한 특별한 인물인데, 주변의 현실적인 일상을 독특한 시선과 색감으로 표현한 화가입니다.”

구상으로 바꾼 후 이 동문이 주로 그리는 그림은 주로 풍경화다. 고즈넉하고 차분한 풍경 묘사에 강렬하고 따스한 색감과 크고 과감한 터치로 더하는 붓놀림을 보여주고 있다. 혼자서 조용히 캔버스 앞에 앉아 오로지 붓을 놀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창작자의 열정이 느껴졌다.

“사실, 캔버스를 대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막상 캔버스 앞에 서면 어떻게 인생을 그 안에 생생하게 담느냐에 대한 자기성찰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되죠. 캔버스 속에 홀로 빠져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캔버스에 몰입하면 온 세상이 그 면적으로 축약되고 그 속에 드라마가 있고, 쇼가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웃음)”

“열정으로 가르친 은사님들...경남고 나온 건 큰 행운”

그에게 좀 낯선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 동문이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이미 프로작가가 됐는데, 작품이 좀 팔립니까?

이 질문에 이 동문은 씩 웃으면서 맥주를 권하며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팔린다”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두 차례 가진 개인전에서 전시된 작품의 70% 정도가 팔렸다고 했다. 그가 2005년 붓을 들고부터 지금까지 그린 작품은 2백여점이 넘는다고, 상당한 숫자의 작품이 팔린 것으로 짐작된다.

이 동문은 말양 출신으로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 경남고 때 특별한 추억담이 있으시지요?

“나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모교가 그렇게 대단한 학교인줄 미처 몰랐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남고가 대단한 학교라는 걸 깨달게 됐고 경남고를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기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남고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정말 우수한 분들이셨고 우리를 가르치는 열정들이 대단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몇몇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경남고 다녔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이 동문은 그림이야기는 이어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한 뒤 뜨거운 창작자의 열정으로 ‘인생2막’의 늘그막을 보내고 있는 그가 부러웠다. 그런 복된 늘그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허택(25회, 치과의사 겸 소설가)>

경남중고동문 불자회(경불회) 제 2차 정기가족법회

일 시 : 2013년 7월 20일(토) 오후 6시

법회장소 : 미륵정사(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 앞)

공양장소 : 호구정(246-9371, 미륵정사에서 대학병원 방향 첫 번째 골목)

제 2차 정기가족법회는 월봉스님(6회)이 주지로 계시는 미륵정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에도 뜻있는 동문 및 가족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부득히 법회 참석이 힘든 분은 7시경 공양장소인 호구정으로 바로 오셔도 됩니다.

회장 정영천(21회)

연락처 : 서정환(28회) 010-4857-0573, 김법영(33회) 016-554-2655, 정영학(33회) 010-4560-1413, 이종민(41회) 010-3842-4890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스님, 18회) 및 용건릉 순례에 많이 참석해주신 동문 및 가족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 산책 ② - 병산서원

만대루에 오르면 내 몸은 건축 속에 있지 않고...



만대루는 기둥만 남기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병산을 그 속에 채우고 있다. 건축은 프레임으로서만 존재하며 자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축은 그 공간이 더욱 본질적인 것

건축을 보통 공학이나 예술의 한 부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좀 더 아는 듯한 이들은 그 두 부분의 접점에 건축이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건축을 큰 조각처럼 가시적 대상으로만 본다는 사실이니 그런 견해는 틀렸다. 건축은 그 공간이 더욱 본질적인 것이며 이는 우리 삶의 형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건축의 이해는 우리가 사는 모습의 이해이기에 인문학에 더 가깝다. 문제는 이 공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건축을 결코 알지 못한다. 특히 양식이라고 해봤자 기와집이나 초가집 뿐인 우리의 전통건축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 현대미술관의 건축부문 수석 큐레이터라면 세계 건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이다. 현재는 컬럼비아대학 미술사학교수인 베리 버그돌(Barry Bergdoll)이 그 자리를 맡아 있는데 이 사람이 4년 전 한국에 와서 내 건축을 답사하기를 원했을 때, 그를 안동 하회마을의 병산서원으로 먼저 안내한 적이 있다. 한국건축의 공간을 보게 하기 위한 뜻이었으며 이를 이해해야 한국성에 바탕을 둔 내 건축에 대한 이해도 쉬울 것이라 판단한 의도였다.

다른 건물에 비해 과도하게 긴 만대루의 비밀

병산서원은 서예 류성룡(1542~1607)을 모시는 사액서원으로 하회마을과도 절벽 같은 너들대벽을 두고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남쪽에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이 있으며 그 밑으로 낙동강의 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고요한 곳이다. 따라서 공부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소이며 오로지 자연과 마주하는 삶을 사는 곳이다.

이 서원의 건축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 강의동과 서예 류성룡의 위패를 모신 사당부분, 그리고 하인들이 머무는 주소(廚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이 기능에

맞는 규모를 유지하며 지형에 순응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중심부인 강의동은 네 개의 건물이다. 맨 위에 강의를 하는 입교당(立敎堂), 그 앞에 좌우로 학생들이 기거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그리고 남쪽아래에 누각인 만대루(晩對樓)가 있어 5,60평 정도 크기의 마당을 감싸고 있다.

밖에서 보면 중첩된 기와지붕이 만드는 풍모가 경사진 지형과 잘 어울려 있지만, 가만히 보면 만대루의 길이가 다른 건물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은 마당에 들어가 입교당에 앉아보면 절로 나오는 탄성과 함께 풀리게 된다. 앞산 병산이 만대루에 가득 들어와서 마당의 한 쪽 벽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만대루는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둥만 남기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병산을 그 속에 채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 크기는 마당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길이이어야 한 까닭에 긴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건축은 프레임으로서만 존재하며 자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운데 빈 마당에서 비움의 새로운 세계 시작

더욱이 입교당의 대청에 앉아 뒷벽의 작은 문을 열면 병산은 마당을 타고 강당을 관통하여 뒷 마당과 장판고를 넘어 뒷산으로 이어진다. 공간이 흐르는 것이며, 그 속에 앉은 건축은 매개자가 되어 그 흐름을 거슬리지 않고 이어준다. 기둥에 의지하고 걸터앉아 다시 병산을 보면, 이름 그대로 병풍 속에 달린 듯 펼쳐져 있고 시시때때로 불안개가 그 풍경을 변화시킨다. 사계절의 시간이 만드는 이 절경은 그 속의 갇힌 고요한 마당을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다.

만대루에 올라 병산을 바라보면 도무지 내가 건축 속에 있지 않고 병산의 녹색에 파묻힌 것 같은데 뒤를 돌아 보면 나는 마당을 두고 오로지 삼라만상의 본질을 논하는 자세가 되어 입교당을 마주한다. 역시 건축은 대상이 아니라 매개



입교당의 대청에 앉으면 병산은 마당을 타고 강당을 관통해서 뒷산으로 이어진다. 공간이 흐르도록 건축이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속 고요한 마당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비움은 학문의 시작이리라.

사물에 민감한 베리 버그돌은 이 고요한 풍경 속에 오래 머물며 오래된 서원의 공간을 몸으로 마음으로 한껏 누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이 병산 서원이 갖는 놀라운 공간의 중요와 힘을 체득하고 있었고 그게 한국전통건축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내 건축을 답사하며 같은 느낌으로 또한 즐겨 워했으니 내 '불순한' 의도는 성공이었다.



승효상 (25회, 건축가)

박승준 동문의 체험 중국 이야기 ⑧

중국인들, 찬 물에 머리 절대 감지 않는다



박승준

(27회, 전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중국인들은 목욕을 잘 하지 않는다며!”

베이징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돌아 온 죄(?)로 필자가 주변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질문들 중 하나다. 상당히 단정적인 말투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 말 끝에 “중국인들은 일생에 딱 세 번 목욕을 한다.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그리고 죽은 뒤에 한 번”이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덧붙인다. 이런 경우 필자는 보통 “글쎄...”라며 얼버무리고 만다. 말을 하자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다.

몸 잘 안 씻는 건 날씨 건조하고 물 사정 나빠서

우선 말해 둘 것은 흔히 한국사람들은 ‘중국인들’이라고 단순화해서 말하나 그 ‘중국인들’이란 게 알고 보면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5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땅 덩어리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대하다. 기후도 사막기후에서 아열대기후까지 다양하다. 우리가 중국과 중국인을 말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대체로 중국인들은 잘 안 씻는 편이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기후와 물 사정 때문이다. 중국 대륙은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다. 겨울에는 한랭한데다 우리처럼 목욕물을 덥혀 사용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고 있지도 않다. 거기다가 물까지 귀하다. 그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씻는다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중국의 물 사정은 심각하다. 특히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물 사정이 나빠 부자가 아닌 서민들은 목욕은 커녕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형편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와 건설노동을 주로 하는 농민공(農民工)들은 상수도가 없는 쪽방에 세 들어 살면서 그릇 씻은 물에 행주 빨고, 그 물로 세수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환경이므로 목욕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도 잘 씻지 못하고 살아

중국인들이 몸을 잘 씻지 않는 이유 중에는 외부 환경 외에도 몸을 너무 자주 씻는 것을 건강에 안 좋다고 보는 시각도 작용했을 것 같다. 요즘 서양의학에서도 이제는 ‘너무 씻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중의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몸의 노폐물을 자주 씻어내는 것을 균형의 파괴로 생각해왔다.

하여튼 우리도 예전엔 몸을 잘 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난으로 찌들었던 시절, 남자들은 낮에 개울에서, 여자들은 밤에 저수지 같은 곳에서 몸을 씻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번 하기도 어려웠던 때였다. 설날이나 추석 전날이면 동네 공중목욕탕이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비곤 했다. 모르긴 해도 그 시절 외국인들은 우리를 보고 “한국인들은 목욕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인은 ‘沐浴’...중국인은 ‘시자오(洗澡)’

실제 중국인들은 대체로 머리를 잘 감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때가 딱지떡지한 채로 봉두난발(蓬頭亂髮)

을 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것을 본 한국사람들이 ‘중국인들은 목욕을 잘 안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중국인들은 목욕(沐浴)을 ‘시자오(洗澡)’라고 한다. 우리의 목욕이 ‘머리 감을 목(沐)’과 ‘씻을 욕(浴)’인데 비해 중국에서는 ‘발 씻을 세(洗)’와 ‘몸 씻을 조(澡)’로 돼 있다. 한국인들에게 목욕은 보통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감고, 온 몸을 씻는 개념이라면, 중국인들은 발부터 씻고, 온 몸을 씻는다는 개념이다. 몸 씻는 순서가 다른 것이다.

중국인들은 머리를 소중하게 여겨 머리를 절대로 찬 물로는 감지 않는다. 또 남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자신에 대한 최고의 모욕으로 간주해서 엄청나게 화를 낸다.

중국여행을 갔다 온 한국사람들은 흔히 “중국사람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 “중국사람들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물론 이 역시도 몸을 자주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나뭇종류인 상차이 또는 향채 때문에 나는 특유의 냄새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마늘냄새가 난다며 싫어하는 것과 같다.

대도시엔 초호화판 ‘桑拿’와 ‘健身中心’ 준비

또한 중국인들은 대체로 옷을 잘 빨아 입지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옷에서 악취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눈치다. 그런 옷차림으로 태연히 모임에도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참 대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하이(上海)시에서 가장 변화한 난징(南京)로 가는 호화 사우나, 내부를 온통 금색으로 장식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잘 살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점차 목욕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대도시,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는 수많은 ‘상나(桑拿·사우나)’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의 찜질방이나 사우나보다 훨씬 호사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더 크고 물이 팔팔 쏟아지는 샤워기를 설치해놓은 곳들이 말 그대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초호화판 욕조와 수많은 마사지사를 고용한 대형 사우나와 사우나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센터(健身中心)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이 목욕을 싫어한다는 말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중부 내륙과 서부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지역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사우나나 피트니스센터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야기이지만...

長江물을 黃河로 끌어오는 공사 한창 베이징 등 대도시 물 사정 심각

중국은 국토가 넓고 기후환경이 다양해서 ‘중국의 물 사정’이 어떻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크게 보면 황허(黃河) 이북지역은 대체로 물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면 된다.

수도 베이징(北京)의 경우 물 사정이 나쁘다라고 질라서 말할 수 있다. 베이징의 지질은 사질 토양이 기본이라 지하수 사정이 좋지 않아 북쪽 100km쯤에 미원(密雲)호수라는 규모가 큰 저수지(水庫)를 만들어서 생활용수를 쓰고 있다.

베이징 남쪽을 흘러 산둥(山東)성으로 흘러 우리의 서해로 흘러드는 황허(黃河)는 유역의 도시들이 취수를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물길에 곳곳에서 끊어지는 단류(斷流)현상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에는 1년에 100여일 이상 황허 곳곳의 물길이 끊어지는 단류현상이 나타났었다.

장강(長江·揚子江)은 황허보다 유량이 풍부하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현재 ‘남수북조(南水北調)’라는 이름



남수북조 사업의 3개 노선도. 지역에 따라 동부, 중부, 서부 노선으로 나뉘어 있다.

의 대규모 물길 만들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장강의 물을 황허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사다. 과거 수(滬)양제(揚帝)가 건설한 운하의 현대판에 해당하는 이 남수북조 공사는 ‘현대 중국의 아버지’로 부르는 쑨원(孫文)이 처음 구상한 것을 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실천에 옮겨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선(東線), 중선(中線), 서선(西線) 세 갈래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바다로 간 농부 ①

서울대 농대 나온 농사꾼이 뱃사람이 된 까닭은...

천 금 성
(14회, 소설가)



아직도 가난한 시절이던 1960년대 중반, 동이 트기 무섭게 확성기가 틀어대는 '새벽종'을 신호로 조국근대화를 향한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서울대 농대 입학과를 졸업한 나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과수원이나 일구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야학이라는 것을 시작한 참이었다.

운명을 바꾼 포스터...해양작가 꿈 일깨워

그 해 연말, 영도대교 인근을 지나다 담벼락에 나붙은 포스터 하나를 보았다. 마도로스 청년 하나가 부름뜬 눈으로 바다를 응시하며 물레바퀴처럼 생긴 커다란 키를 돌리는 때 우 역동적인 그림인데, 그 상단에 '어선해기사 단기훈련생 모집'이라는 제목이 써어 있었다. 유엔기구의 하나인 FAO가 저개발국 수산업을 증흥시킬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한국원양어업기술훈련소'라는 긴 이름의 기관이 내건 포스터였는데, 어로 및 기관학 두 과에 각각 30명씩을 선발하여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 원양어선에 사관으로 승선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흥분했다. 고향에서 농사꾼으로 지내는 틈틈이 작가가 되기로 작정하고 대학 졸업 전부터 나름대로 단편소설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어 차례 신춘문예에 응모하였으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창작의 기본적 바탕인 문장력이야 얼마큼 자신이 있는 데다 대학신문 기자를 한 경력도 있어서 소설 열개는 그려져서 꾸러낼 수 있었으나 핵심 요소인 소재가 너무 흔하고 빈약하여 마냥 본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곤 했었다.

그런데 문득 바다라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자 그 뿔뿔이 해양을 주제로 한 작품은 어떨까라는 괴이한 생각이 떠올랐다. 가령 뱃길은 포경항해에서 돌아와 <백경>을 썼고, 콘레드는 세계의 바다를 두루 항해한 끝에 <로드 집>을 쓰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훈련소가 영도대교 건너편의 가까운 남항동에 자리 잡고 있을 때문이었다.

그 한 달 후 나는 훈련소가 지급하는 빨간 모자와 선원풍의 제복을 입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장애물을 만난 건 내가 바다와 전혀 관련 없는 서울대 농대 출신의 농사꾼이라는 점이었다.

면접관의 못 마땅해 하는 얼굴을 본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교관님, 저는 물론 바다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만 필요로 한다면 이처럼 세계적 규모의 훈련기관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나중 세계에 이름을 떨칠 한 사람의 해기사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다음 해인 1967년 1월 초순 동기 훈련생을 대표하여 입소선서를 함으로써(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덕분이었다) 미래 한 사람의 어엿한 뱃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실수하면 개죽음"...어로장의 주의사항에 공포감

6개월간의 기초과정을 마친 우리는 350톤급 훈련선 '진달래' 호를 타고 남태평양으로 원양실습을 나갔다. 아직도 한국의 조선술이 변변치 못한 시절인지라 일본에서 건조한 훈련선은 기간 승조원을 합친 80여 명이 승선할 만큼 웅장한 데다 시설도 여객선 못지않은 초호화선이었다. 선장은 해군중령 출신이었고, '땅개' (훈련생)들을 1등어부로 담금질할 어로교관은 동경수대(東京水大)를 나온 재일교포 기자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가와(北川) 씨였다.

부산항을 출항, 현해탄을 건넌 훈련선은 어구자재를 보충하기 위해(한국은 아직도 자급력이 부족했다) 일본의 오키나와(四日市) 항에 기항한 덕분에 난생 처음 이국풍물을 구경하는 과외소득도 얻었다.

다시 일본을 뒤흔 훈련선은 일로 사모아의 광고광고 항을 향해 속력을 높였다. 말 그대로 섬 조각 하나 보이지 않는, 오로지 수평선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망망대해였다. 그래서 세계일주 항해에 나선 마젤란이 태평양으로 들어서면서 '아, 마르 파시피코! 아, 잔잔한 바다여!' 라고 외쳤던가.

열흘 후 적도를 통과한 다음 길버트제도 인근인가 하는 곳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날의 어획이라야 50kg 짜리 황다랑어 한 마리와 나중 늦게 쌍으로 걸려든 비슷한 크기의 눈다랑어 두 마리가 전부였다. 어로장은 어획이 목적이 아니라, 백면서생인 '땅개들'에게 우선 바다란 무엇이든 거기서 건져 올리는 어획물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 방점을 찍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날 주낙을 깔기에 앞서 어로장이 말한 주의사항이 워낙 공포스러워 나를 공포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범을 보이기에 앞서 어로장은 미끼(공치)를 끼운 낚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목을 자르는 기요틴(단두대)이야. 실수로 낚시에 꿰여 물에 빠지면 백이면 백 다 죽는다. 아차피 건져 올리려면 배를 한 바퀴 돌려야 하는데, 그 때는 이미 1백 킬로미터로 가라앉아 있으니 말이다."

어로장의 그 말이 아니더라도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개죽음이었다. 그것은 출항하기에 앞서 '항해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상 말을 당하거나 혹은 사망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어로장의 그 말은 이후 내가 10여 년 이상 선장으로 세계의 어장을 두루 헤집는 동안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원양항해학의 제 1과 제 1장이 되었다.

진달래 호가 아자수가 허리를 꺾은 채 남국의 정취를 들춰 풍겨내는 사모아에 입항한 것은 그 해 8월 중순의 일이었다.

사모아 시멘스클럽의 패싸움...맛아 죽을 뻔 했던 사건
"야, 모두 나와! 시멘스클럽에서 되놈들과 싸워!"

입항하고 사나흘이 지난 초저녁, 현지에서 산 업서에도 고국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다. 갑판으로 올라갔더니 이미 여남은 명의 훈련생들이 저마다 각목이며 대나무장대를 움켜쥔 채 부두를 질러가고 있었다. 그럴 때 몸을 사리다가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어서 나 역시 그 뒤를 따라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모인 훈련생은 열추스무 명 가량 됐다.

스타키스트와 밴캡 두 통조림공장 너머에 자리 잡은 시멘스클럽은 당구대와 뮤직박스를 갖춘 선원 휴식처였다. 그곳에서 훈련생 몇이 캔맥주 두어 개를 비운 끝에 대만 선원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한바탕 주먹을 교환한 게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대만선원들은 이미 도망을 친 다음이었고, 한쪽 테이블에서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선 살가람의 중년 하나를 제외하면 홀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와중에서 평소 다혈질이던 신(辛) 아무개 훈련생이 어디서 구해 왔는지 아주 커다란 야자나무 막대기로 아까의 중년을 마구 짓밟아댔다.

"이 새끼, 아까부터 왜놈 행세를 하던 대만놈 아냐?"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중년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림하기 어려운, 참으로 모진 뒤달이었다(나중 안 일지만, 그는 한 배의 최고 책임자인 일본선 어로장이었다).

"마, 됐다. 이제 돌아가자."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외할아버지로 둔 주먹장이 홍(洪) 아무개의 진두지휘로 우리는 철수 길에 올랐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두 통조림공장 앞 넓은 부두에 적어도 선 명은 넘어 보이는 대만선원들이 날이 번쩍이는 밀림도(刀)며 갈퀴 달린 학갓대 등 갖가지 무기를 피나든 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동기생들과 행동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한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 시멘스클럽으로 후퇴한 다음이었고, 나 혼자만 부두에 남겨져 있음을 알았다. 나는 수 척의 일본선이 가까이 있음을 보고, 그렇다면 어영부영 일본인을 흉내 내어 시간을 끌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그때 슬그머니 배로 돌아가면 되리라는 꾀도 아둔한 꾀를 궁리해냈다. 하지만 그 꾀야말로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계기였다. 대만선원들은 눈치가 빨랐다. 나를 보자마자 네댓 명이 슬금슬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게 그 증거였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요, 사면초가였다. <다음호에 계속>

다시 보는 부산 ⑮ / 하야리아부대와 부전시장 등

맘먹고 한나절 둘러볼 만한 서면 로터리 부근

글/사진 김형운 (18회,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서면로터리는 그것이 가진 대단한 교통 기능만큼이나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서면로터리 주변은 마음먹고 한나절 또는 하룻밤 어슬렁거리려볼 만한 곳이다.

60년 된 하야리아 부대 자리는 공원화 공사 한창

지난 5월 어느 날, 하야리아 부대 자리를 찾아갔다. 넓은 공터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부대의 옛 모습은 어느새 다 지워졌고 그 자리에 키 큰 나무들이 열병식 준비하듯 줄을 짓고 있었다.

넓은 담벼락 옆의 민간인 동네도 철거되고 있었다. 많은 집들이 이미 뜯겨나갔고, 남은 집들도 해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60년 남짓 미군들과 군속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체온이며 웃음소리가 배었을 옛 동네 좁은 골목들은 텅 비었고 메달라버렸다.

내가 다섯 살 때 하야리아 부대 바로 남쪽의 동해남부선 철길 옆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때 철로 저편에 미군 부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질게 화장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타구니 그 은밀한 부분에도 '구찌베니'를 바른다고 했다. 무슨 애인지 다 알아듣지 못할 나이였지만 으스스한 기분은 지금도 되살아난다. 그때의 짝막한 한마디가 여자를 바라보는 내 시선에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집은 한 일년 만에 철로변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다. 그 뒤로 하야리아 부대 가까이 갈 일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 미군 군수 부대를 완전히 잊고 지낸 적은 없다. 부산 사회에 그들은 늘 가까이 있었다. 무엇보다 각종 병기와 더불어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군수 물자들이 끊임없이 부산항에 부러졌다. 많은 부산 사람들이 그 덕택에 먹고 살았다. 군사 관련 행사나 정치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로도 그들은 부산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하야리아 병사들이 외출을 못해 요즘은 조용해." 또는 "미군 군목이 회화를 가르친대." 하거나 "이거 거기 피엑스 물건이야" 하는 식으로 부산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했다.

이제 그런 간섭은 끝난 것 같다. 일제시대에는 경마장이었다가 해방 때 미군에 접수당했던 땅, 2010년에 부산 사람에게 되돌려진 이 16만평 넓은 공터는 내년에 '부산 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

롯데백화점 부근엔 성형외과 밀집... '미인 제조라인'

서면로터리에서 서쪽의 구포 방면으로 70미터쯤 떨어져서 서면 롯데백화점이 있다. 옛날 부산상고 자리다.

'쇼핑과 레저가 함께 하는 국내 최대 복합 생활문화 백화점.' 이는 서면 롯데백화점이 스스로 붙인 수식어다. '국내 최대'라는 것이다. 교통 인구가 국내 최대인 곳이니 그럴 만도 해보인다. 하야리아 부대가 과거의 부산에서 하나의 거대한 성으로 존재했다면 롯데백화점은 나란히 선 롯데호텔과 더불어 현재의 부산에 군림한 거대한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에는 경쟁사인 신세계백화점이 한 군데인 데 비해 롯데백화점은 네 군데 있다. 동래와 해운대와 중앙동 그리고 서면이다. 이 네 군데 중에서 서면 롯데백화점이 특히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주변에 성형외과가 단연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압구정과 청담동 일대에 성형외과가 많다고 하지만 밀집도로만 치면 이곳이 단연 국내 1위(어쩌면 세계 1위)이다. 백화점 정문 맞은편, 그리고 백화점 왼쪽 면과 뒷면의 길가에 성형외과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간간이 섞인 피부과와 치과와 함께 미인 제조 라인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다.



하야리아 부대 옆의 마을 풍경. 남은 집들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밤이 되면 백화점을 에워싸고 포장마차들이 한 서른 대 줄지어 선다. 이 또한 밀집도에서 국내 최대라고 할 만하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연다는 이 작은 포장마차들에는 젊은 여성 손님들도 적지 않다. 다 예뻐 보인다. 나는 일찍이 부산에 미인이 많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요새 길에서 만나는 부산의 젊은 여성들은 대체로 용모에 결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를 알 만하다.

서면시장의 돼지국밥과 '없는 게 없는' 부전시장

서면 롯데백화점과 로터리 사이에 서면시장이 있다.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 안에 좌판들을 벌려놓고 있다. 그러나 천정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건물만큼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쇠퇴하였다. 다만 1층의 음식점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국수집과 밥집에 횡집도 있다. 특히 짬뽕집은 점심 시간이면 줄을 서서 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릴 정도다. 시장 건물 밖은 통닭집과 돼지국밥집, 밀면집, 칼국수집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시장 안팎이 음식점들로 문쳐 '먹자골목'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이 먹자골목에서 나는 돼지국밥집에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다. 다섯 군데 돼지국밥집들이 나란히 서 있어 이 또한 보기 드문 밀집도를 보여주는데, 이곳의 돼지국밥은 수준을 인정할 만하다.

서면시장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다. 2편 동시 상영 영화관이다. 부산에서 단 하나 남은 곳이 '롯데극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서면시장 북동쪽 골목 안에 있다. 손님 중에는 중늙은이들이 많고 입장료는 5천원. 영화보다는 휴게실에서 틀어주는 프르노 덕택에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부전시장은 서면로터리에서 동래 가는 방향으로 50미터쯤 가면 나온다. 거기서 동해남부선 부전역 앞까지 이르는 규모가 무척 큰 시장이다. 서면시장과 같이 1960년대에 자리 잡았는데, 종합 운동장에 투경을 댄 듯한 건물은 천정이 높고 깨끗하다.

'드렁허리'라고 아는가? 얼른 보면 장어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이 민물고기도 이 시장에 있다. 그러나 국산은 아



롯데백화점은 성형외과들로 3인이 둘러싸여 있다. 국내 최대 성형 라인이 형성된 곳이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본 풍경.



부전시장 안의 민물고기 가게.

니다. 귀해진 국산 대신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왔다. 이놈만 빼고 미꾸라지부터 가물치, 잉어에 개구리, 자라까지 우리나라 강에서 나는 민물 생선과 악재는 다 모여 있다. 물론 바닷고기와 축산물도 풍부하다. 채소와 과일 종류는 말할 것도 없다. 강과 바다, 농촌의 생산물이 이곳만큼 고루 풍부한 시장은 흔하지 않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물산은 다른 것 같다. 심심할 때 구경삼아 한 바퀴 돌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시장을 본다'라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김성언 동문의 漢詩 산책 ④

하늘 위는 소리도 냄새도 없이 적막하리



김성언 (24회, 동아대 교수, 한국한시학회장)

내 죽거들랑 아무도 울지 말라. 다만 내 사랑하던 하늘의 별이여! 잠시 눈을 감아다오. 생명은 꽃처럼 지고 다시 피어 나날이 세월이 흐르는데 바람이여! 하늬바람이여! 나지막이 꽃잎을 흔들어도. 내 영원히 잠잘 때.



나이 들면

죽음 체험을 한다고 일부러 관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다들 자만(自挽)을 한 수씩 써보는 것도 괜찮은 일인 듯



1960년 김용호 선생이 4월 혁명을 기념해 발간한 시집 <항쟁의 광장>에 실린 '진혼의 노래'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혼을 대신해 쓴 것으로 자만(自挽), 즉 스스로 쓴 묘비명(墓碑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육신을 불사른 의인을 위한 만사(萬詞)답게 간결한 가운데도 자못 비장미가 넘치는 명구(名句)라 하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썽나 썼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한 만사(萬詞)를 미리 써 두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가한 세상 살아가면서 겪었던 풍상과 회한이나 자부(自負)를 짧은 글귀로 마무리하는 것이 풍례다. 회대의 독설

가 조지 버나드 쇼는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런 꼴 당할 줄 알았지"라는 유명한 독설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퍼부었다. 발자크와 함께 프랑스 근대 소설의 2대 거장이라 불리는 스탕달은 "밀라노 사람 베일레, 살았노라, 썼노라, 사랑했노라!"라는 말로 이승에서의 자신의 업을 요약했다. 본명이 마리 앙리 벨르(Marie Henri Beyle)인데 모국 프랑스보다 예술과 학문의 본거지인 이탈리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름조차 그곳 발음으로 베일레라고 썼다. 글쓰기로 밥벌이를 삼았던 데에다, 파리의 이름난 바랍둥이답게 평생 여자 뒤꽂무니를 쫓아다니는 자신의 생애를 사랑이라는 한 마디로 포장하고 있다. 조선 성종조 사람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은 삼촌으로부터 내뿜김을 당한 불운한 왕 단종을 위해 벼슬을 단념하고 충절을 지킨 이른바 생육신의 한 사람이며 산림삼결(山林三傑)로 추앙받는 대시인이다. 서인으로 강등당하고 무덤마저 파헤쳐진 단종의 어머니 소릉(昭陵)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훈구대신들로부터 미친놈으로 지목당한 후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한강 밤섬에 숨어 살면서 광약(狂藥), 즉 술로 세월을 보냈다. 똥통 위해 정신이 혼미한 어

느 날 아침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만 4수를 지어 스승인 점필재(沾畢齋) 김종직(金宗直)에게 부쳤다. 사람들 어이 알리 죽은 뒤 즐거움이, 살아 생전 고생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焉知死後樂, 勝於生前災. 하늘의 귀신은 길흉과 합하고, 춘하추동 네 계절은 흥망성쇠와 같다네. 鬼神合吉凶, 四序同消息. 하늘 위는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곳, 높고도 넓어서 행당그럼 적막하리. 上天無聲臭, 高廣且寥廓. 인간세상 살았을 제 좋고 미운 감정들, 가슴 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오. 在世好惡念, 無一掛胸臆. 나이가 들면 죽음 체험을 한다고 관에도 일부러 들어가 보고 밤중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공동묘지를 거닐기도 하는데, 다들 자만을 한 수씩 써보는 것도 괜찮은 일인 듯하다. 짧은 고백을 통해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사람에 대한 미움일랑 벗어 던지고 우리 다 같이 무한을 향해 뛰벼뛰벼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자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리.

秃筆雜記

할매들 이야기

동기인 K와는 부부동반으로 자주 어울리는 사이다. K의 부인은 사람 좋고 재미난 분이다.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여서 나는 그 친구부인을 대놓고 '할매'라고 부른다. 지난 봄 그 할매가 해준 이야기다. 하나 뿐인 외손녀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가족들의 신상카드 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할매는 취미가 뭐죠?"라고 묻더라. 그래서 두말없이 "고스톱이라고 적어라"라고 했더니 그 손녀 마뜩찮은 표정으로 눈을 흘기더니 "그라곤 할매는?" 이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 그래서 "너거 할매 취미는 음주가무 아이가"라고 했더니 그 손녀가 "하알매! 무슨 소리고? 그렇게 적으면 학교에서 뭐라 카겠노?"라며 비명을 지르더라는 것. 그래서 "와, 사실대로 적어야지. 너거 할매, 나가서 친구 만났다하면 취해서 돌아오는 거 나도 잘 알자나? 그리고 취해서 왔다하면 부르는 노래가 '해는 저서 어두분데...' 아이가? 그러니 음주가무지."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 지난 음력 설날 오후, K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하고 있노?"라고 했더니 "차례 지내고 낮잠 한숨 자고 방금 일어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바깥은 제법 춥다. 거기는 안 춥나?"라고 지나가는 말로 물었더니 "우

리집 할매가 보일러를 팡팡 틀어놔서 더울 지경이다"이랬다. 내가 "어? 웬 일로?" 라고 했더니 K는 "그 잔 우리집 할매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다고 보일러 틀어놔네"라며 껄껄 웃었다. # 그래서 내가 그 할매를 바꾸라고 해서는 한마디 농을 했다. "이거 보소, 평소 남편한테는 보일러 안틀어주다가 며느리 왔다고 보일러 팡팡 틀고... 이럴 수 있소?"라고 했더니 그 할매가 이런다. "우리 영감이야 돈 벌어오는 것도 선찮고 해서 좀체 보일러를 안틀어주지만, 서울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덩기러 왔는데 보일러를 안 틀 수 있소?"라며 껄껄 웃었다. 하기사 남의 집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우리집 할매도 마찬가지다. 겨울철에는 가스비 아낀다며 어지간해서는 보일러를 안 틀어주고, 여름철에도 바깥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전기 돌 아간다"며 기겁을 하며 에어컨을 멀쩡하게 두고도 가동하는 일이 거의 없다. # '원전비리'로 인한 발전중단으로 '전기대란'이 올 것이라는 언론보도다. 아무리 부정비리가 횡행하는 우리 사회라고 해도 해먹을 걸 해먹어야지 원전 부품을 서로 짜고 불량품으로 납품했다니, 기가 찰뿐이다. 이래저래 올 여름은 아무래도 뜨겁게나 흘리며 지나야 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바우>

■ 포토갤러리



31회 어울림 한마당 성황 이뤄...단합 과시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산 일원에서 31회 동기들의 단합대회인 '2013년도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동기 53명과 동기가족 18명 등 총 71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오전 9시30분 범어사 입구에서 모여 북문을 거쳐 고당봉에 오른 후 하산, 오후 2시부터 범어사 아랫마을의 '동지'에서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들어갔다. 1부에서 각 지회별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동부지회가 우승, 서부지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2부행사로 동기가족 제기차기대회, 낱말맞추기 게임, 31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시종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31회 동기들의 우애와 단합을 확인한 하루였다. <31회 홈페이지에서>

◇ 이 '포토 갤러리'에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어 드립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기사 제보, 기고 받습니다
동창회보 편집실
yongmanews@gmail.com

■ 박태환 동문의 '실전 골프' 특강 ① - 연재를 시작하며

자신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골프가 어떤 스포츠인지를 먼저 생각해본다. 골프의 핵심은 클럽을 휘둘러 골프공을 목적지로 날리는 것, 즉 스윙에 있다. 그런데 그 스윙으로 이뤄지는 샷이 필드에서는 물론이고 드라이빙 레인지에서조차도 똑같은 것을 두 번 할 기회가 없다. 매번의 샷이 다르고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매번 다른 샷이 주는 난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게 바로 골프다.

골프는 또한 공이 처해있는 라이상태와 핀이 꽂혀있는 그린 주변 목표지점의 상황을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종합적으로 파악해 그 메니지먼트를 생각해내고 멋진 샷으로 연결시켰을 때 느끼는 희열을 만끽하는 그런 게임이다.

골프의 묘한 점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조금씩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원하는 것은 더 멀리 달아나버린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조금씩 버리고 연습과정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한다. 골프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그 자체의 과정을 즐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골프는 농사일에도 비유될 수 있다. 성실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만큼 땅은 농부에게 수확으로 보상해준다. 그러나 만일 우선 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편법을 동원한다면 땅은 그 만큼은 빼고 보상해준다. 땅은 농부를 속이는 법이 없다. 골프 또한 마찬가지다. 우선 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 후에 그 보다 몇 배나 긴 고공으로 보상해준다. 하지만 처음엔 조금 힘들



박 태 환
(30회, 미안마 양곤 거주)

“골프는 또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동반자에게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한 차원 높은 도덕적 세계로 이끄는 게임이다. 그리고 골프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우쳐 주는 진정한 스포츠다.”

지만 동작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익혀 놓으면 후에 평생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보상받게 된다. 공 역시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법이 없으니까.

골프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와 비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타인을 속여 원하는 것을 잠시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는 골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은 아무것도 없다. 타인과 자신의 신념에 반한 행동은 스스로 괴로워하게 만들고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하게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는 지혜와 가치도 가르쳐준다.

골프는 인격과 성격 형성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을 우선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교훈을 준다. 즉 골프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동반자에게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한 차원 높은 도덕적 세계로 이끄는 게임이다. 그리고 골프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우쳐 주는 진정한 스포츠다.

골프라운드는 서로의 호주머니에 있는 푼돈을 빼앗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적당하게 경쟁심도 부추기고 또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며 그 대화의 화제에 관한한 OB구역도 없다. 해서 마음 맞는 멋진 동반자만 있다면 나쁜 코스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필자 박태환 동문은..

현대개발(울산)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미안마로 건너가 현재 양곤 소재 펠리칸 건설(주) MD로 일하고 있다.

구력 27년의 아마추어골퍼인 그는 최저타기력이 67타(-5)이며 지금까지 출인원 6회, 42홀 연속 No Bogey 플레이, 한 라운드에서 버디 8개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시산책

아버지의 소

이상윤

땀별 속에서 쟁기를 끄는 소의 불알이
물풍선처럼 늘어져 있다
아버지는 쟁기질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신지
자꾸만 쟁기를 당겨 그 무게를 어깨로
떠받치곤 하셨다
금세 주저앉을 듯 흐느적거리면서도 아버지의
말씀 없이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소
감나무 잎이 새파란 발독에 앉아서 나는
소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는 동네
앞을 흐르는 거랑 물에 소를 세우고
먼저 소의 몸을 찬찬히 씻겨주시던
당신의 몸도 씻으셨다
나는 내가 아버지가 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파킨슨씨병으로
근육이란 근육이
다 자동차 타이어처럼 단단해져서 거동도
못하시는 아버지의 몸을 씻겨 드리면서야 겨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걸어오시는 동안
아버지의 소처럼 나의 소가 되신
아버지
아버지가 끄는 쟁기는 늘 무거웠지만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백합처럼 흰
내 어깨를 내어 드린 적이 없다
입술까지 굳어버린 아버지가 겨우 눈시울을 열고
나를 바라보신다
별이 빛나는
그 사막의 밤처럼 깊고 아득한 길로
아직도 무죄한 소 한 마리 걸어가고 있다

이상윤 시인 = 경북 포항 출생, <동양문학>동년(1989), 수주문학상 대상, 현대시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대상 수상, 시집<심세한 고독>, <하느님도 똑같다>.

용마 지상 갤러리 / 박흥식 동문(30회)의 <a surf>



a surf / 2010년, 캔버스에 유화, 70×48cm

울산 우가포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 작가노트

동해남부 울산 정지항 부근의 작은 어촌 우가포에서 그린 그림이다. 화면의 중앙을 어두운 톤의 색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갯바위는 이 그림에서 전경, 중경, 원경을 구분하는 투시원근의 기준이며 화면내의 시각적 역학관계(visual dynamics)의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보통의海景(seascape)과는 정반대의 시점인 바다에서 육지로 달려가고 있는 前景의 회고 푸른 파도(a surf)는 이 그림에서 모든 시각적 운동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異化와 同化, 즉 調化(harmony)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움직임이 받아들이는 수용체인 갯바위 군락은 되도록 강력한 필치와 단순한 색으로 처리되어야 동적인 역학관계가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갯바위의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먼 바다와 구름, 하늘... 이 바다그림은 볼수록 더 깊은 공간으로 감상자를 데리고 간다.

*박흥식 동문 = 홍익대 미술대 졸업.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작품 활동. 현재 부산 송정에서 작품활동 중. 개인전 22차례.

영터리 농사꾼의 전원일기 ④

그놈의 개 때문에 농사 포기하고픈 마음까지...



김재환

(18회, 전 한림대 영문과 교수)

비닐하우스와 원두막을 짓고 나니, 이번에는 물을 해결할 차례였다. 그 동안 먹을 물은 생수를 가져왔고, 밭에 쓸 물은 옆의 영감님 집에서 양동으로 길어다 썼다. 그런데 그게 여간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시군(市郡) 통합을 해서 명색이 춘천시 관내라고 하지만, 동면 지내리에는 아직 수도가 놓이지 않았다. 영감님은 산 위에 약수가 나오는 지점에 다 큰 수조(水槽)를 설치하고, 수조에 고인 물을 고무호스로 집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그 거리가 꽤 멀어 7~8미터는 족히 되어 보였다.

주위에서 나더러 지하수를 파서 쓰라고 권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2~3미터 쯤는 지하수는 큰돈이 들지 않지만, 석간수(石間水)가 나올 만큼 깊이 뚫으려면 천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영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조에서 넘쳐흐른 물이 고이는 데에다 고무호스를 박아서 원두막까지 끌어왔다. 원두막 옆에 사다 놓은 큰 물통까지의 거리는 아마 30미터쯤 되었을 것이다. 넘쳐흐른 물을 받아서 쓰는 터라 그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를 때는 그거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눈은 게울러도 손은 부지런한 법이여”

이처럼 농장 풀을 갖추기까지는 옆의 영감님 외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나를 영농으로 안내해준 영농가이드가 사학과 박 교수였다면, 국문과 오 교수는 나의 영농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내가 농지소유자가 된 것을 기념하여 기념식수를 해주었고, 그 이후로 줄곧 나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다. 게다가 오 교수의 모친까지 나의 농사일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분은 농사에 관한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다. 알고 보니 모친은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일을 해나가는 속도가 우리 부부보다 두 배는 더 빠른 것 같았다. 우리가 김을 때면서 힘들어 하면, 모친은

“눈은 게울러도 손은 부지런한 법이여.”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맹렬하게 자란 풀을 ‘눈’으로 보면 억장이 무너지다가도, 막상 ‘손’에 호미를 들고 일을 시작하면, 어느새 몇 미터씩 밭이 말끔해지곤 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고추를 심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지었지만, 너무 늦게 짓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는 바람에 이미 고추 심을 시기를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해는 고추 대신 수박과 참외를 심기로 했다.

말쟁쟁이 개 ‘입상’의 계속된 해작질에...

영감님 집과 우리 밭 사이에는 커다란 우사(牛舍)가 있었다. 그 우사에는 영감님의 의붓 아들인 안씨가 소를 열 마리 정도 키우고 있었다. 안씨는 전업 농사꾼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직업은 배관공이었고, 춘천 시내에서 보일러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와 집이 모두 시내에 있는 그는 하루에 한 두 번씩 농장에 와서 소를 보살폈다. 그는 개도 대여섯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개들은 우사의 말뚝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중 한 마리만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이 돌아다녔다.

내가 ‘입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개는 말도 못할 말쟁쟁이였다. ‘입상’은 그 넓은 땅의 다른 데는 다 놔두고 하필이면 우리 밭에 와서 똥을 싸다. 그리고 채마밭에 핑굴어서 채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파헤쳐 놓기도 했다. ‘입상’은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고 들어가 그 안에다가 똥을 싸기도 하고, 갓 뻥기 시작한 수박과 참외의 줄기를 흠뜨려 놓기도 했다. ‘입상’은 또 원두막에 쳐들어와서 식기와 수저들을 씻어서 올려놓은 플라스틱 찬장을 쓰러뜨렸다. 주말 오전에 원두막에 와보면, 마룻바닥에는 어지러이 개발자국들이 찍혀 있었고, 여기저기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안씨에게 거세게 항의해 보았지만, 그는 형식적으로 몇 번 잡는 체 해보더니,

“죄송해요. 저 개를 묶어야 하는데, 어찌나 악삭빠른지 붙잡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농사하다 보면 다반사로 생기는 일인데, 뭘 그까짓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는 편견이 서려 있었다.

“저 봐, 교수님이 또 줄자를 대서 밭을 만들고 있네”

나는 약간의 정돈벽(整頓癖)이 있어서 비뚤어지거나 흐트러진 것을 못 참는 성격이다. 그래서 밭이랑을 만들 때도 이랑의 수와 넓이를 미리 계산하고, 줄자를 띄워서 똑바로 가지런히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다. 첫해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둘째 해부터 지금까지는 줄곧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와 본 사람들은

“이거 군대 열병식(閱兵式) 하는 것 같네.” 혹은 “이거 관광농원에 놀러 온 것 같네.”

하고 칭찬과 야유가 뒤섞인 탄성을 지를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못 말리는 바보짓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것이 농사일인데, 이런 갑갑한 성격까지 나의 농사일을 두 배 세 배 고달프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차차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그동안 두 번 더 밭을 바꾸었고, 세 번째 밭에다 집을 지었다)에서도 나의 이 기행(奇行)은 종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예컨대 내가 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들이 보기라도 할 양이면,

“야, 저거 좀 봐. 교수님이 또 줄자를 대서 밭을 만들고 있네.”

하고 놀려대곤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나를 놀리는 것은, 밭 모양과 수확량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답답한 성격의 소유자인 나에게 ‘입상’의 그 해작질은 정말 참을 수 없는 폭거(暴舉)가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해 보라.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속대밭이 되어 있는 참담한 광경을! 오죽하면 그놈의 개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까. <다음호에 계속>

필자 김재환 동문은...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64학번) 졸업. 한림대 영문과 교수 역임. 이메일 : jwkim@hallym.ac.kr <편집자>

제 11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 (6월 30일, 경남고 대국장)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창회장 : 허범도(22회) 용마바둑회장 : 김대욱(29회)

한형조 동문의 古典閑談 ⑧

황룡사, 그 너른 폐허의 벌판에 서면...



한형조

(3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원효는 가르친다,
힐링을,
그리하여 자갈치 좌판의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활발발(活潑潑),
다시 시퍼렇게 펄떡거리는 법을...”

원효는 흠로, 요즘 말로 인디(indie)로, 불교를 익혔다. 괴이한 행색으로, 주렁주렁 쇠지팡이를 짚고, 춤을 추며, 술집과 법당을 자유로이 오갔다. 비판은 거리낌이 없었고, 자부는 하늘을 찔렀다. <삼국유사>는 그를 ‘야생마(不羈)’에 비유했다. 왕따를 당했을 것은 불문가지! 백고좌(百高座)강회, 구원과 안녕을 위해 여는 100인의 연속 법석(法席)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의 실력은 눈부신 것이었다. 당시 한역된 경전을 한 손에 장악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송고승전(宋高僧傳)>은 그를 일러, “해석의 성재를 창갈 하나로 파고들고, 문장의 진지를 종횡으로 누비는 사람(勇擊義園, 雄橫文陣)”이라고 묘사했다. 이 대목을 읊조릴 때마다 나는, 장판교에 우뚝 선 장비, 혹은 아두를 안고 좌충우돌 길을 뚫고 나오는 조자룡을 연상하곤 한다. 불경은 그만큼 어렵다.

그도 중국에 유학을 시도한 적이 있다. 불교는 도저한 심리학이다. 섬세한 정신분석은 한역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그래서 직접 인도를 다녀온 선배인 삼장법사 현장에게서 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의상과 같이 길을 떠났지만, 중도에 마신 해

골물로 그 ‘학문’ 조차 졸업했다. 그래서 원효가 있게 되었다.

불교는 땃목같은 것이라, 짙어지고 갈 것이 아니다. 원효는 집단과 도그마를 떠나, 계율을 넘어 불교를 살았다. 요석궁과의 만남이 있고, 설총을 낳은 후 스스로 소성거사(小姓居士), 또는 복성거사(卜性居士)로 불렸다. 정신적 귀족(姓)에 까마득히 못미치는(小), 하지리도 못되는(卜) 품급(性)의 속인(居士)이라고 당당하게(?) 자부했다.

어느 날, 왕비가 깊이 아팠다. <송고승전>은 머리에 난 종기라고 하는데, 내 짐자에 우물중이나 정신적 증세였을 것이 분명하다. 백약이 무효라 했다. 명의를 구하려 나선 길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용궁의 사신이 홀연히 나타났다. 용왕은 흠어진 책 몇 페이지를 건네주었다. ‘아가타(agata), 무엇이든 치유하는(滅去) 신비의 영약이니 잘 챙겨라.’ 역시 마음의 병은 의사가 아니고 책, 즉 인문학이 한다.

황룡사, 그 너른 폐허의 벌판에 서면, 그 바람 속에서 원효가 아무렇게나 걸친 누더기로, 사자의 목소리로 치유의 인문을 설파하는 모습이 뚜렷이 떠오른다. 천애의 시간을 격해 있지만, 내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왕실과 귀족, 평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법상에 오른 그가 던진 첫마디는 이랬다. “저번 서까래 100개를 주워모을 때는 끼지 못했지만, 정작 대들보 하나가 필요할 때는 나밖에 없더라!” 이 오만인지, 원한인지, 부정인지 자부인지 모를 외침 속에 원효와 그를 둘러싼 불교계의 사정이 집약되어 있다.

원효가 무슨 강의를 하더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金剛)의 평정(三昧)’을 얻는 법이 거기 담겨 있다.

원효는 포항의 향사사(恒沙寺)에 주석하고 있던 혜공(惠空)과 자주 어울렸다. 물가에서 벌거벗고 놀다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똥을 누었다. 아마도 그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물러들었나 보다. 혜공이 놀렸다. “원효, 자네는 똥을 누었지만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네(汝屎吾魚!)” 그래서 왈, 오어사(吾魚寺)란 이름을 얻었다.

눈부신 성장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다들 풀이 죽어 있다 한다. 원효는 가르친다. 힐링을, 그리하여 자갈치 좌판의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활발발(活潑潑), 다시 시퍼렇게 펄떡거리는 법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해서 의사들도 이제까지 흔히 접하지 않았던 80-90대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노화로 인한 척추압박골절이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70대 정도까지는 비교적 잘 견딘다. 그러다가 80, 90대가 되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시골에 오래 된 재실(齋室)의 나무기둥이 썩어 내려앉듯이 키도 작아지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게 된다. 골다공증이 심하며 조그만 충격에도 척추뼈가 압박골절이 되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일어서기도 힘이 들고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다. X-선 촬영, CT, MRI 등을 찍고 급성 골절이면 뼈와 유사한 성분인 소위 ‘뼈 시멘트’를 압박골절된 척추에 주사하여 보강시키면 많이 좋아진다. 그러나 환자들에 따라 또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부위 척추뼈가 압박골절되어 또 다시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되풀이하곤 한다.

의학의 발달로 심장, 간, 위장 등 여러 부드러운 장기의 질병에 대한 약은 많이 개발되고 이식도 하여 노년에 병이 생겨도 큰 문제없이 비교적 잘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딱딱한 뼈는 그렇게 약물로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척추는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어깨를

龍馬 醫窓

골다공증과 노후 삶의 질

김범영

(33회, 김&정 해운대병원 원장)



인공관절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쉽게 바꿀 수도 없다. 따라서 80-90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척추관리를 잘 해야 한다.

80, 90대에 이르러 골다공증으로 압박골절이 되어 통증의 나날을 보내지 않으려면 여자는 갱년기가 시작되는 50대에, 남자는 최소 60세부터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한다. 특히 여성은 갱년기가 시작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뼈 안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된다. 따라서 골

밀도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골밀도가 -2.5 이하로 감소하면 골다공증 약과 칼슘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먹는 약 대신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도 나와 있어 편해졌다.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태양광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학생 때 배워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골다공증예방에 제일 좋은 운동은 낮에 하는 가벼운 등산이다. 그리고 우유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인이 되면 억지로라도 누구나 하루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일선 의료를 담당하면서 골다공증으로 하루하루를 통증으로 지내는 80, 90대 환자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그들이 50, 60대였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살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당시 의료계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글을 읽는 50, 60대 우리 동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부디 골다공증을 미리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90대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용마 횃집

전망이 좋은 횃집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 용 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용마 에세이

새벽 산책길의 명상

이현영

(14회, 서울 독산동 세영정형외과 원장)



토요일 새벽, 병원 문을 닫는 날이어서 이른 아침 보라매공원을 천천히 산책한다. 단전에 힘을 넣어 심호흡을 하며 탁닛한 스님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천천히 걷는다.

보라매공원 후문의 보라매상을 지나 무궁화 단지에서 배달, 화랑, 아사달, 사임당, 새한, 한빛 등등의 이름이 붙은 무궁화들을 본다. 내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무궁화는 별레 먹고 지저분한 모습이었다. 마치 6.25 직후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무궁화는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더 멋있어졌고 병충해에도 강한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 있다.

동작소방서, 기상대를 지나 야산 산꼭대기에 있는 배드민턴 운동장을 거쳐 산길을 돌아 내려와 다시 보라매공원의 연못가를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약 한 시간을 걷고 나면 배가 좀 출출해진다. 보라매 타운에 있는 '천국 김밥집'에서 파는 모듬김밥 한 줄이 생각난다.

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음식들 중에서 비빔밥과 김밥이 비교적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두 음식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고, 고기보다는 채소가 비교적 많고, 오랫동안 씹을 수 있어 맛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밥은 다이어트하는 데에도 좋다. 나 같은 비만체질에는 소식(小食)을 하는 것이 좋은데 소식에 좋기로는 김밥만한 것이 없다. 김밥 한 줄이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우리 동네 그 김밥집의 모듬김밥은 김, 쌀밥, 소고기, 참치, 날치알, 당근,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달걀, 파, 마늘, 고

추, 참기름 등이 들어 있어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나는 모듬김밥을 먹을 때 김밥 한 조각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50까지 세며 씹는다.

탁닛한 스님은 종이 한 장에서도 우주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어지고, 나무는 빛과 공기와 대지의 여러 가지 영양들을 흡수하여 자라고, 또 이 나무를 키우고 종이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연관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명상했다. 나 역시도 김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 본다. 바다를 고향 삼아 자란 김, 참치, 날치알을 먹으며 오대양을 생각한다. 인도양과 일본을 휩쓴 태풍, 해일, 지진 그리고 서해안의 기름유출로 인한 바다오염도 떠올려 본다.

이어 김일성이 내건 '하얀 이밥과 고기'에 속아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도 생각이 미친다. "이 모듬김밥 한 줄에 북한동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이밥과 고기'가 들어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목이 메이기도 한다.

김밥에 들어있는 당근과 우엉에서 채근담(菜根譚)도 생각하게 된다. 우엉을 씹으면서 "뿌리의 담백(淡泊)한 맛이 씹을수록 단맛이 더해 감을 느낄 수 있듯이 속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담백한 생활 속에서 충실하고 화락(和樂)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노라면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다."는 채근담의 기본정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매번 그렇지만은, 이처럼 김밥에찬이 나올 즈음이면 나의 아침산책이 거의 끝나고 출출함을 느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論評

원형교사의 가치

문화재청이 6월 26일 모교 원형교사(덕형관)를 문화재(근대건축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등록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원형교사는 앞으로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원형교사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근대건축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형교사는 근대 모더니즘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원형평면으로 구성된 특이한 건물이다. 당시 알아주면 국내파건축가인 이천승이 설계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대단한 설계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점들로 해서 "근대건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동문들에게 원형교사는 단순히 이런 건축사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원형교사에 서려있는 역사성과 인문성이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이 까까머리를 하고 제 마다의 꿈을 키우며 공부했던 교실이었다. 바로 그 교실에서 두 명의 국회의장과 현직 대법원장이 나왔다. 고 이태석 신부가, '불멸의 투수' 고 최동원 투수가 공부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우리 동문들에게 원형교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청춘의 한 시절에 대한 추억이 담겨있는 건물이다. 원형교사는 우리 동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며 오늘을 있게 한 정신인 것이다.

원형교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지보수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안전진단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낡은 건물이라고 함부로 허물 수가 없게 된다.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크게 다행스런 일이다. '원형교사문화재등록추진위'를 구성해서 서류준비며 복잡한 등록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온 추진위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용마골프대회 연기 사태를 보고

용마골프대회가 가을철로 연기됐다. 본부동창회는 당초 일요일인 5월 26일 가야 컨트리클럽에서 대회를 연다며 미리 동창회홈페이지와 동창회보 등을 통해 고지했다. 대회를 주중이 아닌 휴일(일요일)에 열기로 한 것은 공지에 있는 동문들이 가급적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각 기별, 지역별로 참가신청을 받아보니 당초 예상했던 참가인원 2백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아보니 매년 참가해온 동문들조차도 일요일이어서 대회참가가 어렵다고 연락을 해 온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국 골프장을 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안 돼 할 수 없이 대회를 가을로 연기한 것이다.

골프대회는 물론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일로 드러난 본부동창회의 미숙한 대회준비다.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빚어진 일이라는 건 알겠으나 골프대회 하나 제대로 예정대로 치르지 못하는 동창회라면 곤란하다.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

랑해도 좋을 것이다. 좋은 지면제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편집자와 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강영녕 (26회, 재우철강 전무이사)

편집실 메모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다. 이번 호부터 새로 연재되는 천금성 동문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바다로 간 농부>가 독자 여러분을 시원한 바다로 안내, 더위를 식혀주리라 기대한다. 많은 성원을 바란다.

▶ 박태환 동문의 <실전 골프 특강>은 골프를 즐기는 동문들을 위해 마련한 새 연재물이다. 라운딩을 즐기는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

▶ 6.25참전 및 전몰동문 명단작성작업을 해낸 배중현 동문(7회)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일이란 소명감 없이는 하기가 어렵다. 배 동문은 지난 몇 달 동안 온갖 근거서류들을 다 뒤지고 우편과 전화로 동기들과 가족들에게 일일이 수소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총을 들고 나섰던 자랑스런 우리 동문선배들의 이름을 파악하게 됐다. 배 동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회보를 읽고...

전몰 및 참전동문들은 우리들의 영웅

지난 5월 6일자로 발행된 경남중고동창회보에서 6.25 때 전사한 동문선배 32명의 신원을 밝힌 기사를 읽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전몰장소, 당시 소속부대와 계급 등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가 전장에서 산화한 전몰동문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으로 달려간 참전동문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교가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친 이런 애국동문들을 다수 배출했다는 사실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배출한 것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 전몰동문들과 참전동문들을 기리는 '성찰의 집'을 모교교정에 건립한 것은 백년 잘한 일이다. 이제 우리 후배들과 재학생들은 그 기념 시설 앞에서 그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후배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매번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들로 편집되고 있는 동창회보를 받아볼 때마다 가슴 뭉툭해지곤 한다. 우리 동창회보는 타고 동창회들이 내고 있는 '소식지 수준의 회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회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






환자 중심·특성화 진료로 앞서가는 샘병원



46년 전통,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안양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400병상 암특화 종합병원 G샘병원
 유니세프 지정, 아기와 여성에게 친근한 샘여성병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한양방협진병원 샘한방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노인병원 및 노인요양원 OPEN 예정(2014년)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병원부문 우수 등급 의료기관
 (2010년 1위, 2011년·2012년 2위)



이상택 (경남고 13회)
 現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
 前 제12대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회장
 前 법무부 전국교정중앙연합회 초대회장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G샘병원 031 389 3000